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48-10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12월

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도 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 재 헌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 은 영 연 구 원

요 약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및 정주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삶의 질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도시 주민의 삶의 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및 정주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하여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7대 정책 부문별 삶의 질 및 지역 발전 지수를 도출하여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층화추출한 표본집단에 대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와 정책 부문별 정주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도시와 농촌 지역 구분에 더해, 인구, 토지이용, 경제활동 등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을 세분화 하여 각 지역 유형별 정주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정주 여건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농어촌 삶의 질 여건을 파악하였다. 7대 정책 부문 및 인구·사회 변동에 대한 통계 자료 27종을 분석하여 시·군 단위에서 삶의 질 여건을 분석하였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비교를 위해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반영되어 농어촌 주민의 전체 정주만족도는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에 대한 전반적은 만족도와 더불어, 살고 있는 마을, 시·군 등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정책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유출과 인구과소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서비스의 강화, 소득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 전년도에 이어 2016년도 본 조사에서도 농촌지역 주민들은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에 농촌지역 주민 중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이주희망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 문제와 소득기회의 부족 문제가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강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지역과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해야만 자녀를 둔 가족의 농촌 거주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삶의 질 7대 정책부문별 농촌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부문들 중 교육부문이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주민들 중 이주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주의향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관련 세부항목의 만족도가 전년도 조사에 비해 하락한 반면, 도시지역은 교육부문의 모든 세부항목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파악을 통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활발한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요구된다. 정주 만족도 평균점수에서는 7대 부문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문화·여가 부문 만족도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반면 농촌지역의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업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활동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안전부문의 세부항목들 중 해당항목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고, 도시와의 격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의 주요 경제활동인 농작업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한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여전히 도시지역의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 부문별로 농촌지역의 상대적 삶의 질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보건·복지, 교육, 경제활동·일자리, 환경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도시 지역에 비해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경제활동일자리, 환경 부문의 경우 농어촌 시·군의 여건이 일반 도시지역 시·군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내용과 방법 ····· 3

제2장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 4
2. 조사 대상 ····· 6
3.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 7

제3장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1. 주요 분석 결과 ····· 17
2. 소결 및 시사점 ····· 44

부록

1. 5가지 지역구분을 통한 농촌주민 만족도 조사 ····· 49
2. 2015년, 2016년 도시 및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비교 ····· 66
3.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 68
4. 2014년 및 2015년 만족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비교 ····· 76
5. 2016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 78

참고 문헌 ····· 83

표 차 례

제2장

표 2-1. 행정구역별 도시지역(동지역)과 농촌지역(읍면지역)의 표본 할당 수 ···· 6
표 2-2. 농촌·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 9
표 2-3. 7대 부문별 마을에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세부 조사 항목 ·· 10
표 2-4. 삶의 질 계획 정책 부문별 성과목표·지표와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비교 ·· 11
표 2-5. 서비스기준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내용의 정주 만족도 조사 반영 현황 ·· 14
표 2-6. 도·농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응답자 특성 ····· 15
표 2-7. 농촌지역(읍면지역)의 응답자 특성 ····· 16

제3장

표 3-1. 만족도 비율의 시계열 분포 ····· 19
표 3-2.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 21
표 3-3. 2015년, 2016년 도시민의 만족도 비율 비교 ····· 22
표 3-4. 2015년, 2016년 도시민의 만족도 평균점수 비교 ····· 22
표 3-5.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 25
표 3-6.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 27
표 3-7. 도·농간의 7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차이 ····· 36
표 3-8. 2012년~2016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39
표 3-9. 이주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 42
표 3-10.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 43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조사 방법 및 개요 ····· 8

제3장

그림 3-1.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 18
그림 3-2. 행복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의 성별차이 ····· 23
그림 3-3. 가족 중 농업인 존재 유무에 따른 행복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의 차이 ····· 24
그림 3-4. 행복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의 소득별 비교 ····· 24
그림 3-5.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29
그림 3-6.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30
그림 3-7.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30
그림 3-8.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31
그림 3-9. 경제활동·일자리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32
그림 3-10. 문화·여가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33
그림 3-11. 환경·경관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34
그림 3-12. 안전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35
그림 3-13. 2016년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 38
그림 3-14. 이주 의향 조사 결과 ····· 42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삶의 질 향상위원회는 2015년부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5~2019,5년)’에 따라 15개 부처, 3개 청의 중앙행정기관 및 14개 시·도가 주체가 되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84개 관련 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1] 제46조에 의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44조 제5항에 의해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촌서비스

1 2004년 법률 제정 당시 법률 명칭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다만, 법률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범위나 정책의 내용적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기준 이행 수준 점검·분석,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농어촌영향평가 전문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추진 상황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그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 추진 및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촌 삶의 질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 본 연구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및 정주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삶의 질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도시 주민의 삶의 질과 비교·분석을 통해 농어촌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및 정주 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위하여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7대 정책 부문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도출하여,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 도시와 농어촌 주민 간 삶의 질 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 특히,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행정구역 상의 도시·농촌 지역 간 구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지역의 특성을 기준으로 도시, 농촌 지역을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농촌의 삶의 질 여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도시민·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

○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에 대하여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층화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 2014년에는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비교 분석을 위한 조사의 틀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조사 실시

□ 통계자료를 통한 농어촌의 삶의 질 여건 실태 파악

○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기초가 되는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하여 7대 부문 및 지역사회의 활력과 관련한 27종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구축된 통계자료를 통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분야별 정주 여건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 2012년에 개발된 이래로 삶의 질 정책 추진 현황에 맞추어 수정해 온 '농어촌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시·군 지역 단위로 분석하였다(부록 수록).

- 도·농복합시와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도시 지역과의 비교를 위해 일반시도 함께 분석했다.

제 2 장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 지역의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특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또한 본 조사자료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장성 있는 주민의 삶의 질 실태 조사를 위해 2012년부터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12년도에는 10개의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하여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시범 실시하였다.

- 2013년도에는 2012년도의 시범조사를 근간으로 하여, 20개의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한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조사와 동일한 20개 행정리 마을 패널을 대상으로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역별 층화 추출 조사를 통한 도시민과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를 시범 실시하였다.
- 2015년도에는 지역별 층화 추출 조사를 통해 도시지역(동지역)과 농촌지역(읍면지역) 거주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을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를 시범 실시하였다.

○ 2016년도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층화 추출 조사를 통해 도시지역(동지역)과 농촌지역(읍면지역) 거주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조사는 2015년의 조사를 기반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함과 동시에,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성과지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2]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및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하였다.
- 그리고 이를 통해 연도별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추이를 확인하고 정책 부문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또한 부록1에서는 지역의 인구학적 특수성과 도시-농촌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유형별 정주 만족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

2 자세한 내용은 '3.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참고

2. 조사 대상

○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지역을 구분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은 농어촌 정비법 상 도시·농촌을 구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전 지역의 동을 도시로, 전 지역의 읍면을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 도시지역은 700명을 할당하고, 농촌지역은 2,000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표본할당을 진행하였다.

- 최종 표본수 3,287명 중 동지역 주민 응답자는 950명, 읍면지역 주민 응답자는 2,337명이었으며, 해당 표본을 조사분석에 사용하였다. 행정구역별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표본 할당 수는 <표2-1>과 같다.

표 2-1. 행정구역별 도시지역(동지역)과 농촌지역(읍면지역)의 표본 할당 수

행정구역	모집단	동지역 표본 수	읍면지역 표본 수	합계
서울	8,369,085	317	0	317
부산	2,949,882	68	24	92
대구	2,035,304	48	60	108
인천	2,393,863	42	4	46
광주	1,163,612	41	0	41
대전	1,217,177	32	0	32
울산	939,200	24	36	60
세종	178,082	3	13	16
경기	10,133,443	194	251	445
강원	1,282,591	22	226	248
충북	1,294,564	24	201	225
충남	1,694,566	27	298	325
전북	1,521,908	30	202	232

행정구역	모집단	동지역 표본 수	읍면지역 표본 수	합계
전남	1,567,693	8	300	308
경북	2,243,751	26	387	413
경남	2,726,414	36	301	337
제주	506,506	8	34	42
합계	42,217,641	950	2,337	3,287

3.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은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전화 인터뷰 조사에 해당하는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로 진행하는 방법과, 온라인 조사 (Online-survey)를 병행하였다[3]. 아울러 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 통신원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 총 표본 수 3,287명 중에서 조사 전문업체에 의해 조사된 표본 수는 총 2,867명이며, 농촌경제연구원이 패널로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현지 통신원[4]을 대상으로 조사된 표본 수는 총 420명이다.
- 2015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부터 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조사 샘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 통신원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샘플링을 통해 조사 대상 시·군으로 추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현지 통신원을 표본에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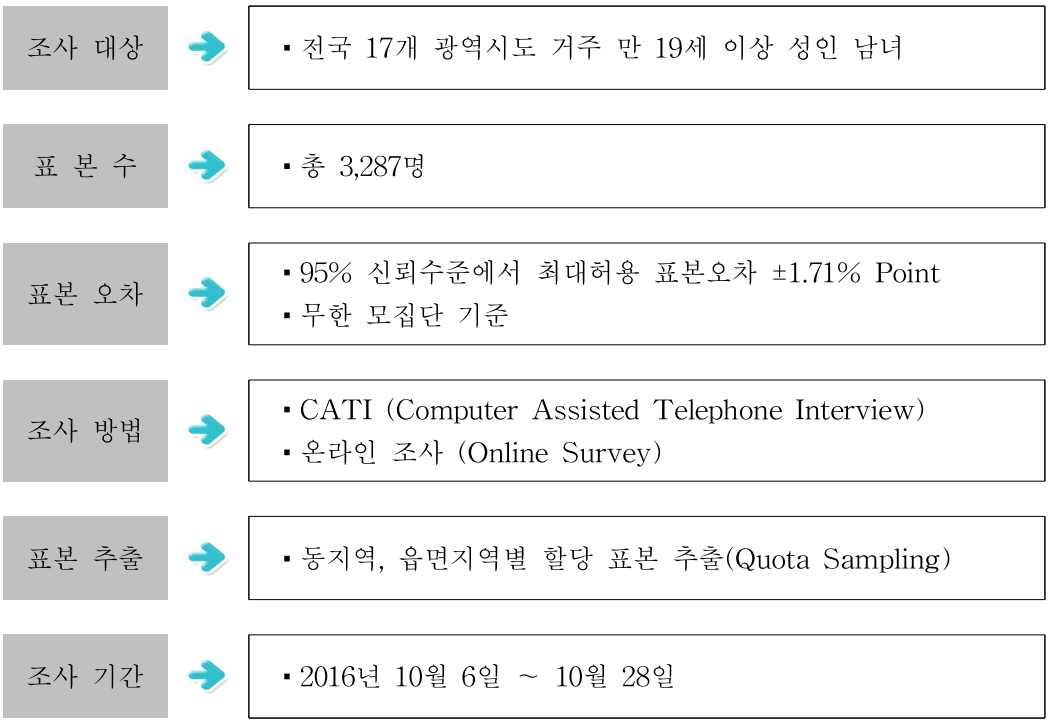
3 도시·농촌 주민 대상의 정주 만족도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총3,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가경제조사 샘플의 추출 방식을 통해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다.

○ 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하였다.

○ 조사 대상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2-1. 조사 방법 및 개요



○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와 7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그리고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과 이주 이유 등이다<표 2-2>.[5]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중요도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중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

5 <부록 4>의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참조

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 삶의 질 여건에 대한 세부항목별 만족도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별로 3~5개로 이루어져있는 개별 세부항목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만족도 질문 시, 만족 정도에 따라 10점 척도(1～10점 부여)를 사용했다.

표 2-2. 농촌·도시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삶의 질 만족도	○ 포괄적 의미의 삶의 질 만족도(행복감) ○ 전반적인 정주 만족도(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마을에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별로 2～5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이주 의향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 거주 지역 ○ 거주 기간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상태 ○ 자가용 차량 소유 유무 ○ 가족 구성 ○ 가구 소득 ○ 주택형태, 주택점유형태 ○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여부(귀농·귀촌한 경우, 연 수) ○ 마을 일(행사나 모임)에 대한 참여도

○ 2016년도 조사에서는 삶의 질 향상 7대 부문별 정주 만족도 세부항목 문항이 삶의 질 정책 부문별 성과지표의 내용과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2015년도의 문항에서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 2015년도 조사항목과 삶의 질 계획 정책 부문별 성과 목표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내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정주생활기반부문'에 1개, '안전부문'에 2개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표 2-3. 7대 부문별 마을에서의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세부 조사 항목

부문	조사 항목
보건·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16년 신설문항)
경제활동·일자리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여가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경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부문	조사 항목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16년 신설문항)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16년 신설문항- 농업종사자만 대상으로 함)

- 먼저, 삶의 질 계획 정책 부문별 성과목표·지표와 2015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문항을 <표 2-4>와 같이 비교하여, 정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목표·지표임에도 기존 조사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정주생활기반부문의 광대역 통합망 관련 문항과 안전부문의 농기계 사고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정주생활기반부문의 지표인 '광대역 통신망 구축률'에 해당하는 정주만족도 조사 문항으로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다.

  * 안전부문의 지표인 '농업용 기계 사고 발생건 수'에 해당하는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으로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를 추가하였다. 해당 문항의 경우, 문항의 특성상 조사표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설문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4. 삶의 질 계획 정책 부문별 성과목표·지표와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비교

부문	성과목표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목표	지표	
보건·복지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가입률	-
		농지연금 가입자수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응급의료기관 부재 지역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층별 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부문	성과목표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목표	지표	
	주민 체감만족도 증진	보건의료 만족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복지여건 만족도	-
교육	농어촌 공교육 확충	농어촌 거점중학교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학교 ICT 기기보급	-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육성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학생 교육복지	진로상담교사 배치율	-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농촌유학 지원시설 수	-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기반	정주공간 활성화	농어촌 생활권 중심지 육성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면단위 상수도 보급율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
		도농복합시,군 하수도 보급율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6년 신설)**
	주거여건 개선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농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슬레이트 주택 철거	
		빈집(폐가) 정비	
경제활동·일자리	6차산업화 기반 마련	농가 소득 대비 농외 소득률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농가 다각화율	
		6차산업 사업자 인증 수	
	농어촌 관광체계화 및 품질제고	국내관광 중 농촌관광 비중	
	농어촌 일자리 지원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마을단위 공동경영체	
문화·여가	문화 인프라 및 인적기반	농어촌 시군 생활문화센터 조성	도서관·미술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농어촌 문화마을 지정	-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읍면별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실시율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실시 시군 비율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	

부문	성과목표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목표	지표	
환경·경관	농어촌 어메니티 관리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마을 도랑 살리기 추진	
	지속가능한 농어업생산 기반 조성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가축분뇨 자원화율	
	대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목재펠릿 생산량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소재 개발	
안전	자연재해 및 안전영농기반	수리시설 보수, 보강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 개션율	
	농어업 작업 안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생활 안전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보행 교통 안전(사고감축)	농업용 기계 사고 발생건 수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16년 신설)**
		1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또한 2015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문항에 농어촌 서비스기준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표 2-5>와 같이 확인하여, 정주 만족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는 국가최소기준 내용임에도 기존 조사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안전부문의 소방출동 관련 문항인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를 추가하였다.

표 2-5. 서비스기준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내용의 정주 만족도 조사 반영 현황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만족도 조사 반영
보건·복지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반영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영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영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반영
교육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반영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반영
정주생활기반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반영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반영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반영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반영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반영
경제활동·일자리	창업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반영
문화·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반영
환경·경관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반영
안전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반영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반영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반영 (16년 신설)**

○ 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2-6>과 같다.

- 조사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대전/충청이 18.2%로 가장 많았고, 거주 기간은 10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8.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간 가구소득은 4,000만 원 이상이 32.9%로 가장 많았다.

표 2-6. 도·농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3,287	100.0	전체		3,287	100.0
거주 지역	서울	317	9.6%	교육수준	무학	109	3.3%
	인천/경기	491	14.9%		초졸 /중졸	572	17.4%
	대전/충청	598	18.2%		고졸	796	24.2%
	광주/전라	581	17.7%		대졸	1593	48.5%
	대구/경북	521	15.9%		대학원 이상	198	6.0%
	부산/울산/경남	489	14.9%		모름/ 무응답	19	0.6%
	강원/제주	290	8.8%	건강상태	좋음	1,553	47.4%
성별	남성	1,856	56.5%		보통	1,049	32.0%
	여성	1,431	43.5%		나쁨	677	20.6%
연령대	19~29세	359	10.9%	가정생활 만족도	만족	1,712	52.3%
	30대	577	17.6%		보통	1,236	37.8%
	40대	641	19.5%		불만족	326	10.0%
	50대	634	19.3%	가족구성	독신가구	405	12.3%
	60세이상	1,076	32.7%		1세대가구	933	28.4%
거주 기간	10년 미만	1,914	58.2%		2세대가구	1,550	47.2%
	10~19 년	542	16.5%		3세대가구	275	8.4%
	20~29 년	376	11.4%		조손가구	28	0.9%
	30~39 년	205	6.2%		기타	96	2.9%
	40년 이상	250	7.6%	미성년 가족유무	있음	1024	52.5%
혼인 상태	기혼	2,536	77.2%		없음	925	47.5%
	미혼	751	22.8%	귀농귀촌 여부	있음	524	15.9%
연간가구소득	1000만원미만	704	21.4%		없음	2,763	84.1%
	1000만원대	410	12.5%	직업	농업/임업/어업	938	28.5%
	2000만원대	449	13.7%		자영업	281	8.5%
	3000만원대	548	16.7%		사무/관리직	902	27.4%
	4000만원이상	1080	32.9%		생산/기능/노무	203	6.2%
	모름/ 무응답	96	2.9%		주부	459	14.0%
					학생	97	3.0%
					무직/퇴직	39	1.2%
					기타	368	11.2%

- <표 2-7>과 같이, 농촌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은 대전/충청이 21.9%로 가장 많았고, 거주기간은 10년 미만이 65.6%로 가장 많았으며, 귀농·귀촌하여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9.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연간 가구소득은 4,000만 원 이상이 27.2%로 가장 많았다.

표 2-7. 농촌지역(읍면지역)의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2,337	100.0%	전체		2,337	100.0%
거주지역	서울	0	0.0%	교육수준	무학	105	4.5%
	인천/경기	255	10.9%		초졸 /중졸	505	21.6%
	대전/충청	512	21.9%		고졸	615	26.3%
	광주/전라	502	21.5%		대졸	984	42.1%
	대구/경북	447	19.1%		대학원 이상	113	4.8%
	부산/울산/경남	361	15.4%		모름/ 무응답	15	0.6%
	강원/제주	260	11.1%	건강상태	좋음	1081	46.4%
성별	남성	1354	57.9%		보통	727	31.2%
	여성	983	42.1%		나쁨	522	22.4%
연령대	19~29세	186	8.0%	가정생활 만족도	만족	1204	51.8%
	30대	359	15.4%		보통	891	38.3%
	40대	394	16.9%		불만족	229	9.9%
	50대	484	20.7%	가족구성	독신가구	288	12.3%
	60세이상	914	39.1%		1세대가구	776	33.2%
거주기간	10년 미만	1532	65.6%		2세대가구	965	41.3%
	10~19 년	289	12.4%		3세대가구	213	9.1%
	20~29 년	197	8.4%		조손가구	23	1.0%
	30~39 년	128	5.5%		기타	72	3.1%
	40년 이상	191	8.2%	미성년 가족유무	있음	680	53.4%
혼인상태	기혼	1898	81.2%		없음	593	46.6%
	미혼	439	18.8%	귀농귀촌 여부	있음	454	19.4%
연간가구소득	1000만원미만	605	25.9%		없음	1883	80.6%
	1000만원대	321	13.7%	직업	농업/임업/어업	879	37.6%
	2000만원대	330	14.1%		자영업	166	7.1%
	3000만원대	382	16.3%		사무/관리직	496	21.2%
	4000만원이상	635	27.2%		생산/기능/노무	146	6.2%
	모름/ 무응답	64	2.7%		주부	313	13.4%
					학생	37	1.6%
					무직/퇴직	27	1.2%
					기타	273	11.7%

제 3 장

도시·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1. 주요 분석 결과

1.1. 도시·농촌 간의 정주 만족도 비교[6]

□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한 삶의 질 만족도 조사결과, 10점 척도 조사에서 도시지역이 6.39점, 농촌지역이 6.44점으로 평균점수는 농촌지역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한 삶의 질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도시지역이 6.65점, 농촌지역이 6.52점으로 평균점수가 농촌지역이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복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t-test를 실시한 결과, p=.577(t=-.558)로 도시·농촌 주민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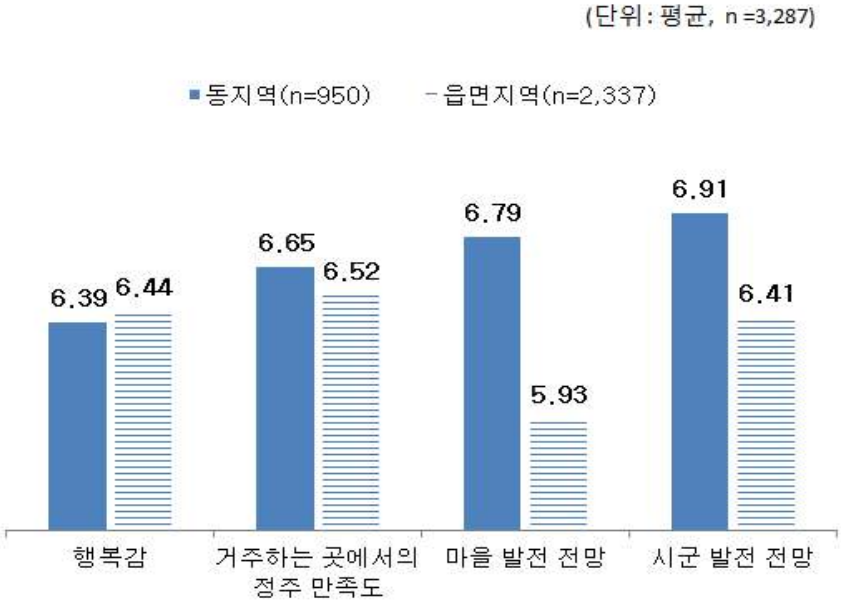
6 2016년 도시·농촌 간의 정주만족도 비교는, 동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읍면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하는 곳에서의 삶의 만족감'에 대한 독립 t-test를 실시한 결과, p=.097(t=1.663)로 유의수준 10%하에서 도시·농촌 주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의 측면에서는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삶의 만족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주민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행복감의 평균점수는 높을 수 있으나, 거주지역에 대한 정주 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낮음을 보여준다.

○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촌 주민들은 시·군의 발전 가능성보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시계열 분석 결과

○ 2012년부터 진행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의 추이를 확인해 보면[7],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농촌 주민의 비율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 본 조사 결과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2012년 35.7%에서부터 2015년 42.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조사 결과에서는 35.1%로 나타나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7.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 또한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의 발전 가능성',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8.0%로 전년도에 비해 4.6%p 하락하였으며, 해당 결과 역시 최초 조사 시기인 2013년 결과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1.2%로 전년도에 비해 2.7%p 하락하였고, 해당 문항은 2012년부터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5년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6년도 본 조사에서 다시 하락하였다.
- '시·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7%로 전년도에 비해 3.9%p 하락하였고, 해당 문항은 2012년 조사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7 2012년~2014년까지의 조사결과는 농촌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결과이며, 2015년, 2016년 조사에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조사결과를 해당분석에 사용함.

표 3-1. 만족도 비율의 시계열 분포

단위: %

구 분	조사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12년	19.7	44.6	35.7
	2013년	14.8	46.3	38.9
	2014년	9.6	49.5	40.9
	2015년	9.9	47.5	42.4
	2016년	10.9	53.9	35.1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2013년	17.8	39.9	42.3
	2014년	9.5	40.9	49.6
	2015년	9.6	47.7	42.6
	2016년	10.8	51.2	38.0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28.3	28.3	43.4
	2013년	30.7	21.3	33.8
	2014년	24.0	40.2	27.7
	2015년	14.8	51.0	33.9
	2016년	18.3	50.5	31.2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2년	15.9	20.1	64.0
	2013년	17.2	20.6	46.5
	2014년	10.5	36.2	42.0
	2015년	9.1	49.7	40.9
	2016년	11.9	51.1	37.0

주1: 조사 응답자 중 해당 문항에 대해 무응답('잘 모름')한 경우를 제외한 결과임.
주2: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2013년부터 도입한 세부문항으로 2012년도에는 조사되지 않음.
주3: 2012~2013년은 5점 척도(1점~5점), 2014년은 11점 척도(0점~10점), 2015년, 2016년은 10점 척도(1점~10점)로 조사함. 5점 척도의 경우는 1점~2점 부정, 3점 보통, 4~5점이 긍정으로 구분. 11점 척도에서는 0점~3점이 부정, 4점~6점이 보통, 7점~10점이 긍정임. 10점 척도의 경우는 1점~3점이 부정, 4점~7점이 보통, 8점~10점이 긍정으로 구분함.

○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의 발전 가능성', '시·군의 발전 가능성' 문항의 평균점수 역시 2015년에 비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행복감’의 평균점수는 전년도에 비해 0.25점 하락,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은 전년도에 비해 0.21점 하락, 마을의 발전 가능성’은 전년도에 비해 0.26점 하락, ‘시·군의 발전 가능성’은 전년도에 비해 0.3점 하락하였다.

표 3-2.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단위: 점

구 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비 고
2012년	3.25	-	3.23	3.71	5점 척도
	(65.0)	-	(64.6)	(74.2)	
2013년	3.38	3.36	3.11	3.53	5점 척도
	(67.6)	(67.2)	(62.2)	(70.6)	
2014년	6.08	6.34	5.06	6.26	11점 척도
	(55.3)	(57.6)	(46.0)	(56.9)	
2015년	6.69	6.71	6.23	6.72	10점 척도
	(66.9)	(67.1)	(62.3)	(67.2)	
2016년	6.44	6.50	5.97	6.42	10점 척도
	(63.8)	(65.0)	(59.7)	(64.2)	

주1: 2012년, 2013년 조사는 질문 시 5점 척도(1~5점 부여),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하였음에 유의
주2: 괄호 안은 100점 만점 환산 점수(2014년의 경우(평균점수×100)÷11로 계산).

○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하락한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농촌지역만의 문제보다는 최근 불안한 국내 정세의 영향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만족도의 하락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 조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3.8%p하락하였으며, 평균점수 역시 0.1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의 발전 가능성', '시·군의 발전 가능성' 에 대한 문항 모두에서 전년도에 비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하락하였으며, 평균점수 역시 하락하였다.

표 3-3. 2015년, 2016년 도시민의 만족도 비율 비교

단위: %

구 분	조사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15년	10.4	52.9	36.6
	2016년	10.3	56.7	32.8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2015년	10.5	47.0	42.5
	2016년	7.7	54.8	37.4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5년	7.3	47.7	44.9
	2016년	7.5	52.4	40.0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5년	6.1	47.4	46.4
	2016년	5.3	53.3	41.4

표 3-4. 2015년, 2016년 도시민의 만족도 평균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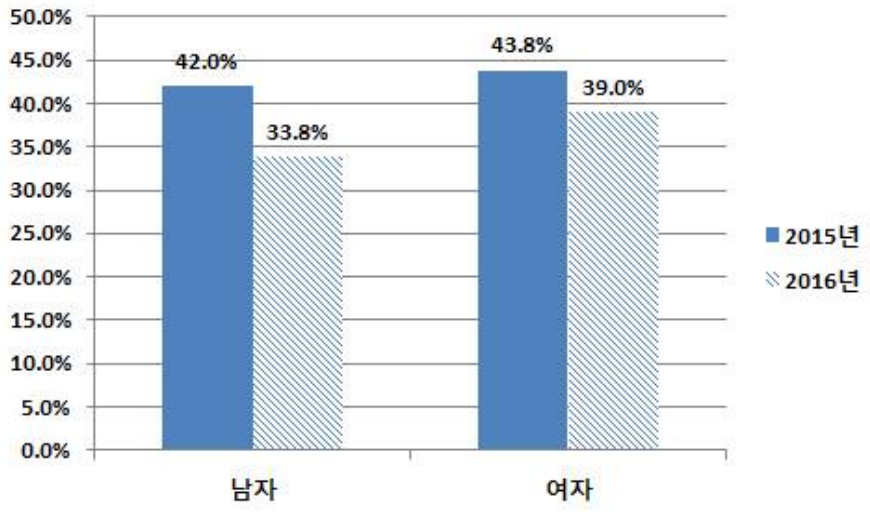
단위: 점

구 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비 고
2015년	6.53	6.71	6.93	7.04	10점 척도
2016년	6.39	6.65	6.79	6.91	10점 척도

○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문항인 '행복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가 여성보다는 남성일 경우,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 연소득 2,000만 원~3,000만 원 대의 응답자인 경우에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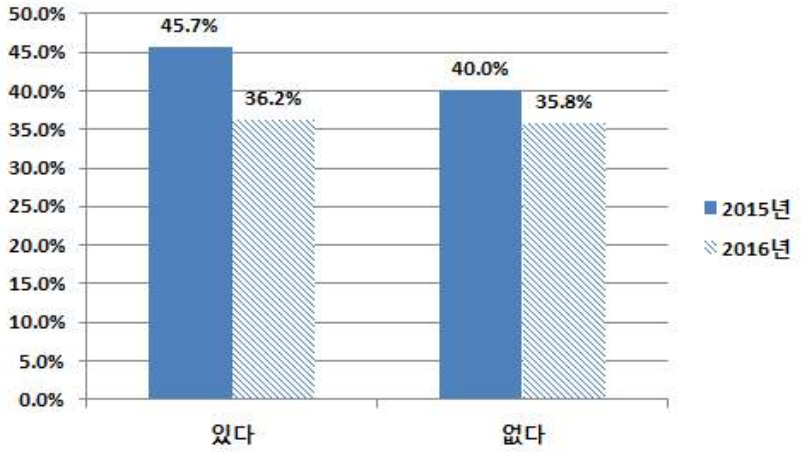
- 10점 만점에서 8점 이상의 만족도 점수를 부여한 응답자의 비율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이 전년도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였다.

그림 3-2. 행복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의 성별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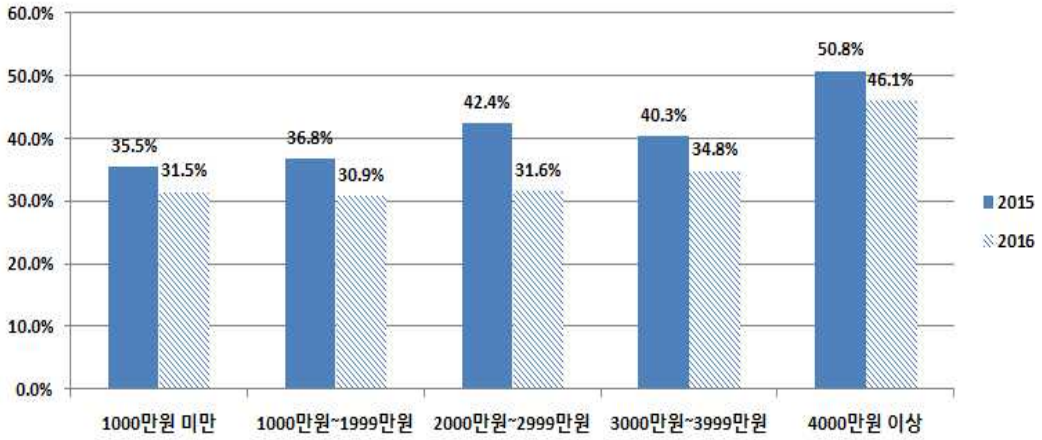
- 8점 이상의 만족도 점수를 부여한 응답자의 비율을 가족 중 농업인 존재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면,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3-3. 가족 중 농업인 존재 유무에 따른
행복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의 차이



- 8점 이상의 만족도 점수를 부여한 응답자의 비율을 소득대별로 확인해보면, 전반적으로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연소득 2,000만 원~3,000만 원 대의 응답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4. 행복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의 소득별 비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조사결과

○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1순위를 보건·복지로, 2순위를 경제활동·일자리로 꼽은 반면, 3순위의 경우 도시지역은 정주생활기반을, 농촌지역은 안전을 꼽았다.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타 부문에 비해 문화·여가와 환경·경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부문 중에서는 도시지역은 환경·경관을, 농촌지역은 문화·여가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의 경우, 전년도에는 정주생활기반이 3위, 안전이 4위였던 반면 올해는 두 부문의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중요도 순위는 전년도와 같았다.

- 그에 반해 도시지역은 전년도에는 정주생활기반이 1위, 보건·복지가 2위, 경제활동·일자리가 3위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의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5.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도시지역	1순위 비율	(950)	26.2	11.1	19.7	21.1	4.5	5.2	12.3
		순위	1	5	3	2	7	6	4
	1~3순위 비율	(2,337)	18.6	11.8	16.2	16.6	11.5	9.9	15.3
		순위	1	5	3	2	6	7	4

구분	(사례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읍·면 지역	1순위 비율	(950)	29.8	9.8	13.0	26.3	5.9	4.2	10.9
		순위	1	5	4	2	6	7	3
	1~3순위 비율	(2,337)	21.2	11.5	13.8	20.0	11.5	7.9	14.1
		순위	1	5	4	2	5	7	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결과

○ 7대 부문별로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평균점수)를 살펴보았다. 7대 부문 전체의 평균점수는 5.62점으로 조사되어 2015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질 만족도 조사(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의 발전 가능성, 시·군의 발전 가능성)결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모두 하락하였으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는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부문은 안전(6.57)과 정주생활기반(6.20)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5.94), 환경·경관(5.82)이 중간 이상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 교육(5.37), 경제활동·일자리(4.83), 문화·여가(4.63) 부문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문화·여가 부문이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2년부터 진행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

과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2015년까지는 모든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도 본 조사에서는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부문의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0.11점, 문화·여가 부문은 0.06점, 환경·경관 부문은 0.08점, 안전부문은 0.0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에 반해 보건·복지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0.03점, 정주생활기반 부문은 0.18점,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0.0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이 특히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

(단위: 점)

부문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보건·복지	5.69	5.62	5.91	6.19	5.94	6.36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5.81		5.87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5.16		5.65		5.51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5.74		6.02		5.96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5.88		5.92		6.00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4.94	5.27	5.48	5.72	5.37	5.63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5.49		5.29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68		5.26		5.20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기반	5.29	5.78	6.01	6.52	6.20	6.35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4.97		5.75		6.09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4.82		6.10		6.03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

부문	평균 점수						세부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용이 편리하다
		5.57		5.70		5.80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6.71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016년 신규)
경제활동·일자리	4.28	4.15	4.77	4.62	4.83	4.76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55		4.89		4.95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4.29		4.83		4.77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여가	3.15	3.55	4.69	4.80	4.63	4.76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77		4.59		4.50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경관	5.79	5.72	5.90	6.30	5.82	6.21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5.04		5.08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83		6.36		6.18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53	6.73	6.61	6.70	6.57	6.73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7		6.32		6.36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34		6.81		6.96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42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2016년 신규)
						5.87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2016년 신규)
전 체	5.09		5.62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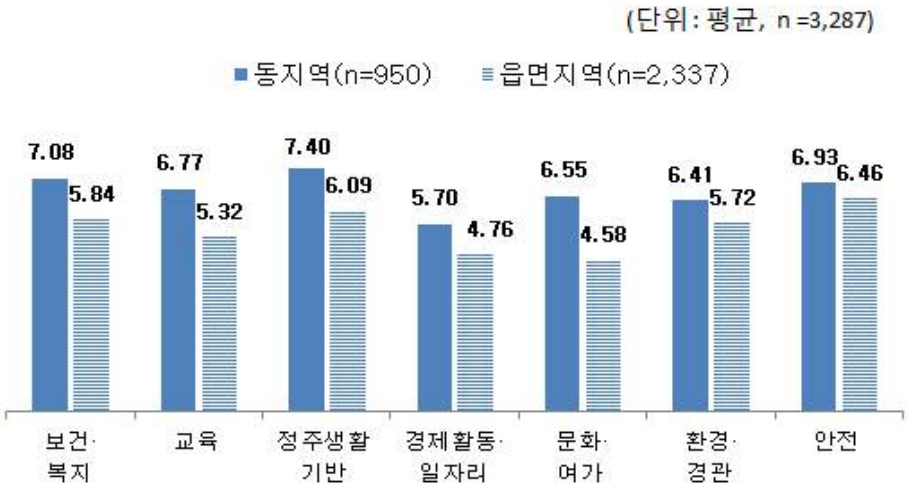
주1: 2014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 2016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함에 유의
주2: 부문별 세부 항목 구성은 각 연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 도시와 농촌 주민의 7대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도시지역의 주민에 비해 농촌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2015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여가 부문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간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2015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여가 부문(1.97점)이며, 이어 교육(1.44점), 정주생활기반(1.31점) 부문 순이다.

그림 3-5.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7대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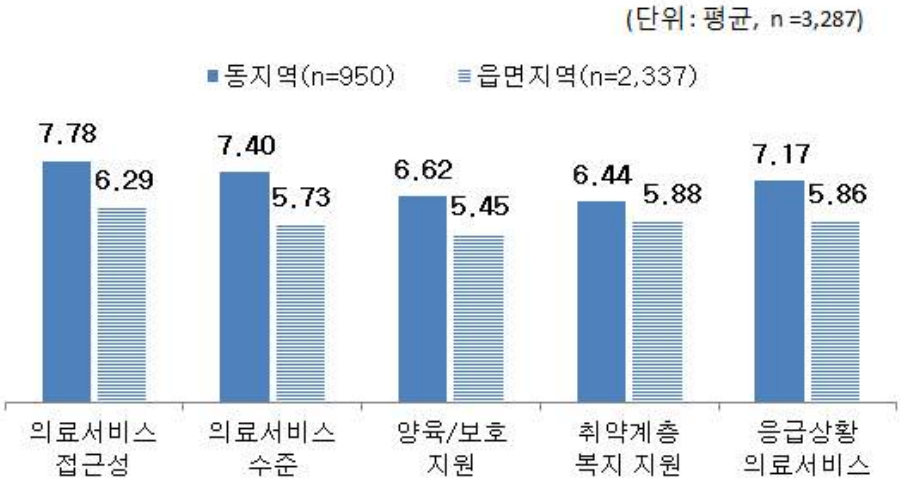
○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세부항목 모두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세부항목은 의료서비스 수준이며, 농촌지역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부항목은 양육·보호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도 조사와 비교해보면, 농촌지역의 경우 세부항목들 중 '의료서비

스 수준’만이 0.08점 증가하였고, 그 외 모든 보건·복지부문 세부항목들의 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에 반해 도시지역의 경우 ‘취약계층 복지 지원’, ‘응급상황 의료서비스’의 세부항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8]

그림 3-6.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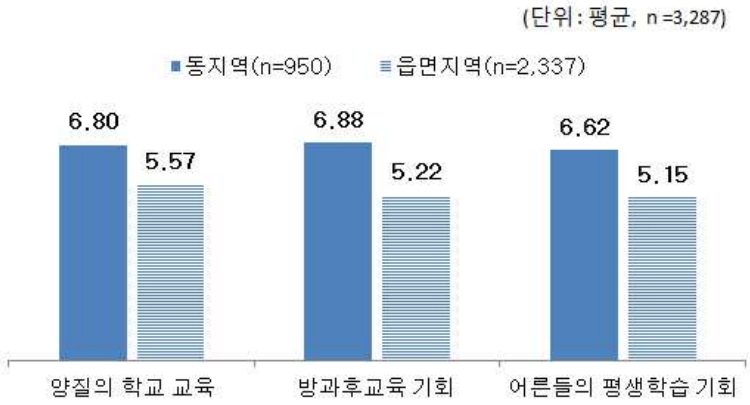


○ 교육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점수를 확인해 보면, 교육 부문 역시 모든 세부항목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가장 컸고,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부문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반면, 도시지역은 교육부문의 모든 세부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삶의 질 7대 정책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의 2015년, 2016년도 도시 및 농촌지역 비교는 부록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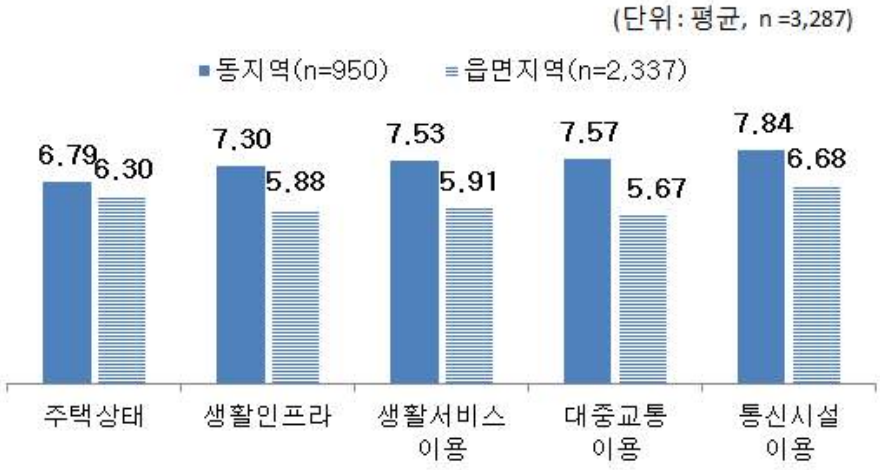
그림 3-7.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점수를 확인해보면, 모든 세부항목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년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고, 도시지역과의 만족도 점수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의 기초적인 생활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생활인프라' 세부항목에서만 전년도에 비해 0.1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세부항목의 점수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에 반해 도시지역은 '생활서비스 이용' 세부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조사에서 신설된 '통신시설'은 정주생활기반 세부항목들 중 농촌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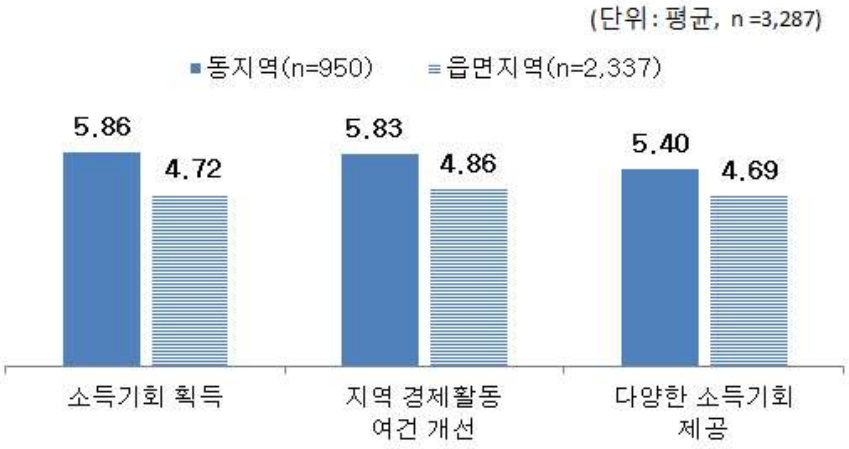
그림 3-8.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모든 세부항목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득기회 획득' 항목이 도시와 농촌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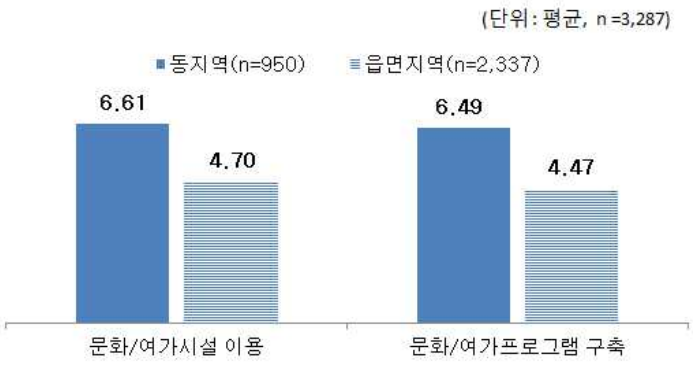
- 농촌지역의 경우, 2015년 조사에서는 '소득기회 획득'이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항목들 중 가장 점수가 낮았으나, 2016년도 본 조사에서는 '다양한 소득기회 제공' 항목이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기회 획득' 항목은 전년도 조사에 비해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항목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에 반해 도시지역의 경우, '다양한 소득기회 제공'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득기회 획득', '지역 경제활동 여건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경제활동·일자리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조사결과 역시, 세부항목 모두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농촌지역의 만족도는 모두 하락하고 도시지역의 만족도는 모두 상승하여, 전년도에 비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차이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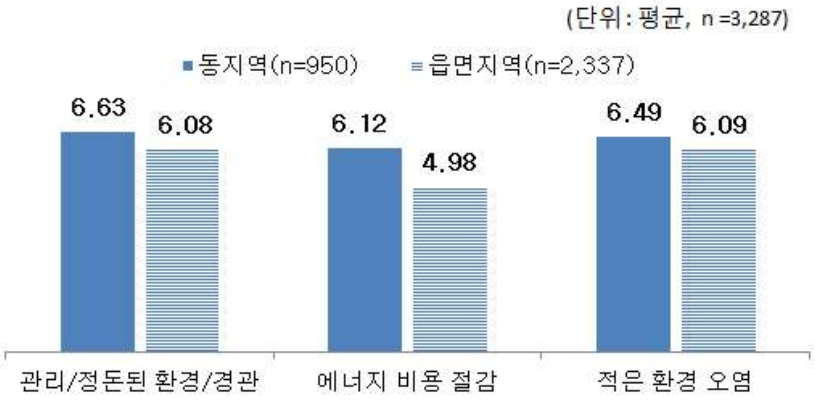
그림 3-10. 문화·여가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환경·경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조사에서도 모든 세부항목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도 가장 낮았다.

- 또한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보면, 농촌지역은 세부항목 모두 만족도 점수가 하락한 반면, 도시지역은 '에너지 비용 절감' 외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환경·경관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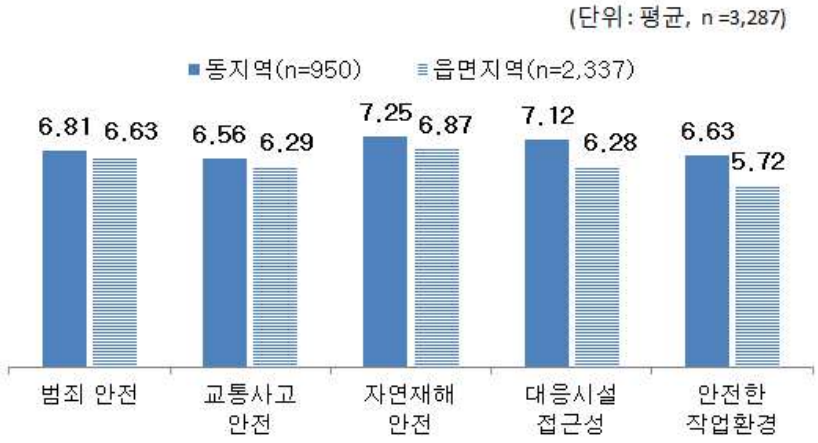
○ 안전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조사 결과에서도, 모든 세부항목에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 부문 중에서 2016년 본 조사에 신설된 세부항목인 '안전한 작업환경'이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범죄 안전' 세부항목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2016년도 본 조사에서 도시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자연재해 안전' 세부항목만이 만족도 점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지역은

모든 세부항목에서 만족도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였다.

- 2016년도 본 조사에서 신설된 항목인 '대응시설 접근성', '안전한 작업환경[9]'의 경우, 기존의 세부항목에 비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한 작업환경에'의 경우,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안전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7대 부문 세부항목별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만족도 평균의 차이를 확인해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세부항목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화·여가 부문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항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지만 전년도와 달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세부항목 다음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차이가 큰 세부항목은,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9 '안전한 작업환경' 세부항목은 농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여, 동지역 거주자 118명과 읍면지역 거주자 1070명의 응답결과를 통해 만족도 점수를 도출하였다.

‘대중교통 이용’과 안전 부문의 ‘안전한 작업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도시지역의 만족도 점수는 상승한 반면,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는 하락하여 그 차이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7. 도·농간의 7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차이

부문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차이	세부 항목
보건·복지	7.78	6.29	1.50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40	5.73	1.67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6.62	5.45	1.17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6.44	5.88	0.57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7.17	5.86	1.30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6.80	5.57	1.22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88	5.22	1.66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62	5.15	1.46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기반	6.79	6.30	0.49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7.30	5.88	1.42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7.53	5.91	1.62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57	5.67	1.91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7.84	6.68	1.15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일자리	5.86	4.72	1.14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5.83	4.86	0.98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5.40	4.69	0.72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부문	도시 지역	농촌 지역	차이	세부 항목
문화·여가	6.61	4.70	1.90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49	4.47	2.02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경관	6.63	6.08	0.55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6.12	4.98	1.14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2015신규)
	6.49	6.09	0.40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81	6.63	0.17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56	6.29	0.27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25	6.87	0.39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12	6.28	0.84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6.63	5.72	0.91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1.2.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2016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및 부문 지수

○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의 26개 세부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10점)까지 10점 척도로 질문하여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와 전 부문의 종합 지수인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구하였다.

- 7대 부문에 대한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는 각 부문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수를 평균하여 구하였다. 부문별로 2~5개의 세부문항으로 구성된다.
-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의 주관적 만족을 종합하여 나타낸 값으로,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문들을 가중평균하여 구하였다. 가중평균 산출 시 사용한 부문별 가중치는 2016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의 부문별 가중치를 적용했다<부록 5>.

○ 2016년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5.6점(10점 만점)이며,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56.2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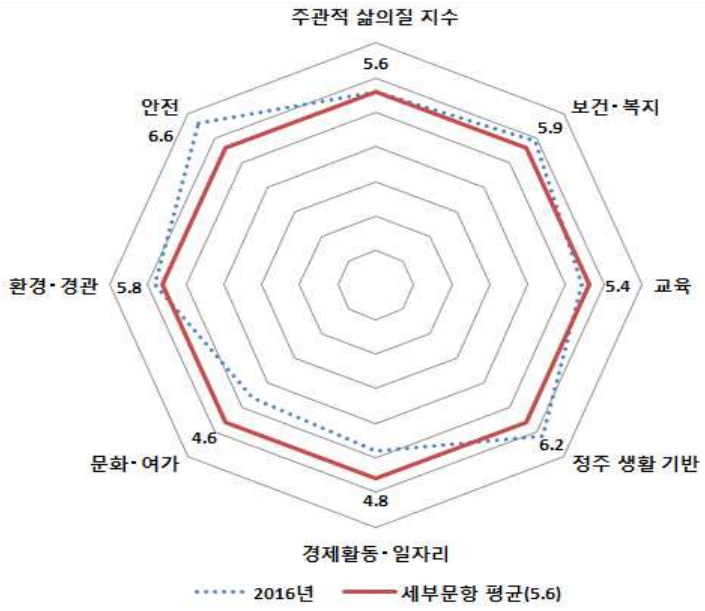
○ 10점 만점으로, 2016년에는 부문별로 5점~6점 정도의 점수가 산출되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등의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 전체 세부문항의 평균(5.62)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부문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교육,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 보건·복지(5.9점), 교육(5.4점), 정주생활기반(6.2점), 경제활동·일자리(4.8점), 문화·여가(4.6점), 환경·경관(5.8점), 안전(6.6점)

그림 3-13. 2016년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단위: 점)



□ 2012년~2016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 연도별로 주관적 삶의 질 지수와 각 부문 지수의 변화추이는 <표3-8>과 같다.[10]

○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전년도와 같은 동일한 수치가 산출되었으나, 부문 지수에서는 교육 부문, 문화·여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은 소폭 하락하였고, 정주생활기반 부문만 소폭 상승하였다.

- 전년도 지수와 비교하여 교육 부문, 문화·여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의 삶의 질 지수는 모두 0.1점 하락하였으며,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지수는 0.2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4년도 조사에 비해 2015년도 조사에서는 모든 부문의 지수가 상승한 것에 반해, 2016년도 본 조사에서는 정주생활기반 부문만이 지수가 상승하고 그 외의 부문들은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2012년~2016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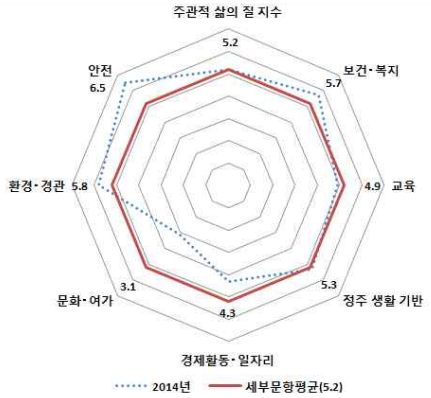
구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분 지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
2012년 (5점 만점)	2.7점	2.8점	2.5점	3.3점	2.1점	2.2점	3.4점	-	2.8점
2013년 (5점 만점)	3.3점	3.6점	3.4점	3.0점	2.9점	2.5점	3.8점	-	3.5점

10 2012년~2016년 각 연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문항 구성에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연도 간 점수를 엄밀히 비교할 수는 없고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조사에서부터는 안전부문이 포함되었으며, 2015년 조사에서부터는 지역사회 부문이 제외되었다.

구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부분 지수							
		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 기반	경제 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지역 사회
2014년 (10점 만점)	5.2점	5.7점	4.9점	5.3점	4.3점	3.1점	5.8점	6.5점	6.0점
2015년 (10점 만점)	5.6점	5.9점	5.5점	6.0점	4.8점	4.7점	5.9점	6.6점	-
2016년 (10점 만점)	5.6점	5.9점	5.4점	6.2점	4.8점	4.6점	5.8점	6.6점	-

주: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5점 척도(응답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1~5점 부여)를 사용한 반면, 2014년~2016년에는 10점 척도(응답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1~10점 부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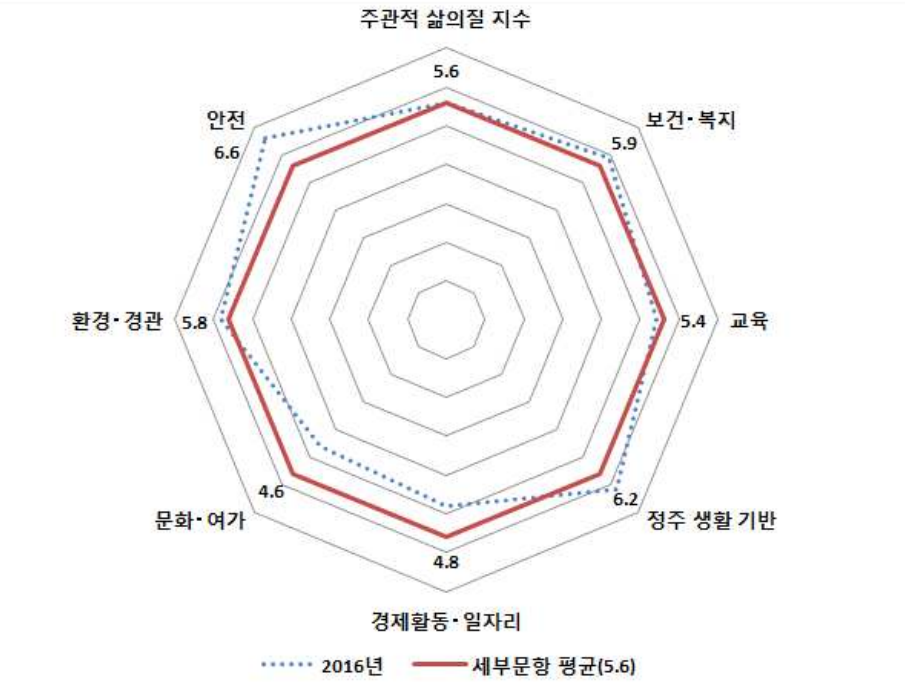
<2014년> 10점 만점에 대한 점수



<2015년> 10점 만점에 대한 점수



<2016년> 10점 만점에 대한 점수



□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 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로 보았을 때는 45.9%가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거주 지역을 분류하여 보면 도시지역 응답자의 57.4%, 농촌지역 응답자의 41.3%가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 도시지역 응답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이주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의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6.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주하려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모두 과반수 이상이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도시주민의 21.5%는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였고, 농촌주민의 21.2%는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 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의 이주를 희망하였다.

그림 3-14. 이주 의향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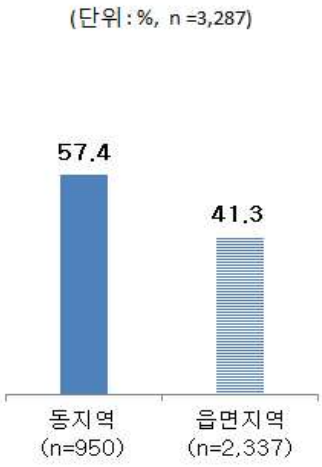


표 3-9. 이주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

구분	도시 주민	농촌 주민
도시로	56.3	55.4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 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17.1	21.2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21.5	17.4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5.1	5.8
모름/ 무응답	0.1	0.1
합계	100	100

○ 응답자 중 이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를 가장 큰 이주 의향의 이유로 꼽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를 가장 큰 이주 의향으로 꼽았다.

- 농촌지역 거주자의 경우, '소득기회' 다음으로 '문화·여가생활 여건'과 '자녀교육환경'을 이유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이주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간의 응답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보건·의료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주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있어서 의료서비스 환경의 불편함은 0.9%로 미미한 것에 반해, 농촌주민의 경우 8.4%의 응답자가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 꼽았다.

표 3-10.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이주하려는 이유	응답비율(%)	
	도시주민	농촌주민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	12.7	17.7
교통이 불편하다	7.9	8.3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	14.9	7.3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12.3	5.7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6.4	10.1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7.5	10.3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3.1	5.6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6.8	3.9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0.9	8.4
난방비가 많이 든다	1.7	1.7
마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2.0	2.1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2.4	3.0

이주하려는 이유	응답비율(%)	
	도시주민	농촌주민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2.0	1.2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1.5	1.6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2.4	1.8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2.0	0.4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0.7	0.6
기타	12.8	10.5
합계	100	100

2. 소결 및 시사점

□ 주민이 주체적으로 농촌 마을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중심의 발전 전략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시·군의 발전 가능성보다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더 낮게 평가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 본 조사결과에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마을 발전 가능성 점수와의 차이가 0.83점으로 전년도의 0.7점 차이에 비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농촌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변화 및 주민 주도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마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발전을 꾀하고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주도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홍보함으로써 농촌 주민에게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유출과 인구과소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서비스의 강화, 소득기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 조사 결과, 전년도에 이어 2016년도 본 조사에서도 농촌지역 주민들은 보건·복지 부문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 중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이주희망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 문제와 소득기회의 부족 문제가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를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도시주민은 0.9%에 불과한 반면, 농촌주민은 8.4%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농촌주민간의 이주희망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의 격차가 가장 큰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농촌지역에서의 인구유출을 막고 주민들이 농촌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아이들을 위한 양육 및 보호서비스, 취약계층이 보건·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농촌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강화 및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지역과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해야만 자녀를 둔 가족의 농촌 거주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삶의 질 7대 정책부문별 농촌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부문들 중 교육부문이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주민들 중 이주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이주의향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교육부문의 모든 세부항목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전년도 조사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특히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세부항목은 7대 정책부문의 모든 세부항목들 중에서 평균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에 도시지역은 교육부문의 모든 세부항목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음세대의 발전과 육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문 농업경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방과 후 교육이나 사교육 측면에서 도시지역과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와 함께 농촌만의 강점을 활용한 교육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도시와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 **농촌주민의 문화·여가에 대한 수요파악을 통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즐거움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활발한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질 7대 정책 부문별 중요도 조사에서는 2012년 조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여가부문의 중요순위는 낮게 나타났지만, 만족도 평균점수에서는 7대 부문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6년도 본 조사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도시지역의 문화·여가부문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농촌지역의 만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농촌주민들은 다른 정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현재 농촌지역의 문화·여가관련 서비스가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농촌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문화·여가부문의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이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 특히 문화·여가부문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는 마을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마을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나 공연 등의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의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작업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활동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016년도 본 조사에서는 삶의 질 계획 부문별 성과목표·지표 중 정주 만족도 조사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조사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안전부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안전부문의

세부항목들 중 해당항목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고, 도시와의 격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조사는 농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의 농업종사자에 비해 농촌지역의 농업종사자가 농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에서의 주요 경제활동인 농작업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5가지 지역구분을 통한 농촌주민 만족도 조사[11]

□ 조사개요

○ 2016년도 조사에서는, 2015년도 조사에 이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이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농촌지역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지자체를 표본 추출하는 방식의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 2015년도 조사에서는 농촌지역을 인구, 토지이용, 경제활동(산업)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중간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농촌지역의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2016년도 본 조사에서는 OECD의 도시-농촌지역 분류를 차용하여 지역 유형화 방식을 변경하였다.

○ 2016년도 조사에서는 OECD의 도시-농촌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인구기준[12]과 함께 도시-농촌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하여 '완연한 도시지역', '중간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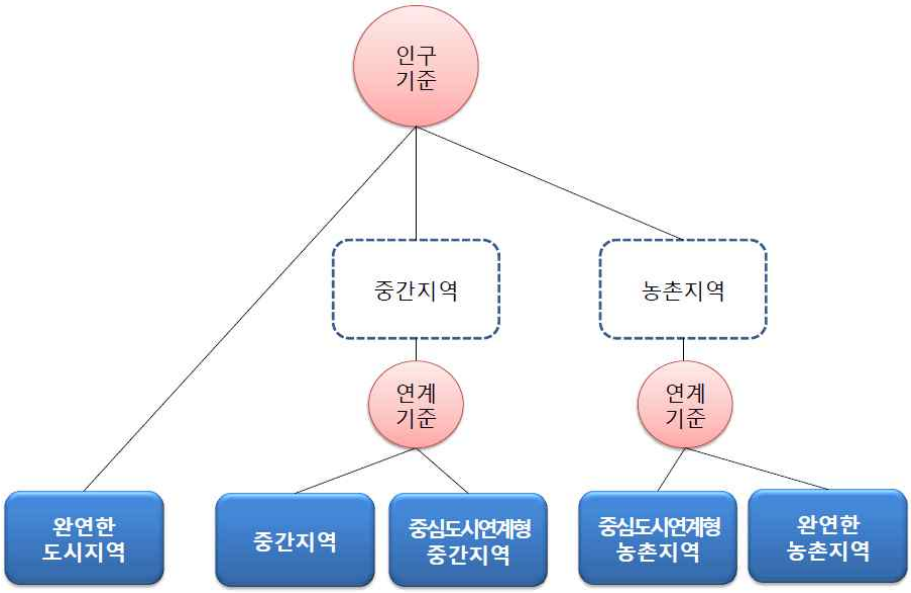
11 2015년도 조사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되 농촌지역을 인구, 토지이용, 경제활동(산업)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성 우세 중간지역, 중간지역, 농촌성 우세 중간지역, 농촌지역의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2 OECD의 도시-농촌지역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도시 외 거주인구 비중이 15% 이하이거나, 도시 외 거주인구 비중이 15%초과 50% 미만이지만 지역인구의 25% 이상이 거주하는 50만 이상의 중심도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완연한 도시(Predominantly Urban: PU)'로 구분한다. 도시 외 거주인구 인구 비중이 15% 초과 50%미만이거나, 도시와 거주인구 인구 비중이 50%를 초과하지만, 지역인구의 25% 이상이 거주하는 20만 이상의 중심도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간지역(Intermediate Regions: IR)'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외 거주인구가 인구의 50% 이상일 때 완연한 농촌(Predominantly Rural: PR)으로 구분한다.

겨',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완연한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였다.

- 인구기준에 해당하는 '인구밀도(150인/㎢) 이상인 읍면이 해당시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먼저 도시지역, 중간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 인구기준에 의해 구분된 중간지역과 농촌지역을, 연계기준에 해당하는 '중심도시[13]로의 통근 및 ·역통근율 10%이상'의 충족여부에 따라 중간지역,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완연한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 지역구분 방법



- 지역유형별 대상 시·군은 <표 1>과 같다.

13 중심도시는 OECD 기준에 따라 인구밀도, 통근영향력, RDI가 전국 평균 이상인 도시로 설정하였다.

표 1. 지역유형별 대상 지역

지역구분	해당지역
완연한 도시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광주시),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속초시), 충청북도(청주시),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전라북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경상북도(구미시, 경산시, 포항시),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도(제주시)
중간지역	경기도(여주시, 안성시), 강원도(삼척시),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충청남도(공주시, 당진시, 서산시, 보령시, 논산시, 홍성군),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경상북도(문경시, 상주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영천시, 영주시), 경상남도(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제주도(서귀포시)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경기도(포천시), 충청북도(진천군, 옥천군), 충청남도(금산군), 전라북도(완주군), 전라남도(나주시, 영광군, 무안군, 화순군), 경상북도(고령군, 칠곡군), 경상남도(함안군)
중심도시 연계형 농촌지역	경기도(연천군, 양평군), 강원도(화천군, 양양군, 횡성군, 고성군), 충청북도(보은군), 전라북도(임실군, 진안군), 전라남도(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영암군, 곡성군, 완도군), 경상북도(성주군, 군위군), 경상남도(산청군, 의령군)
완연한 농촌지역	경기도(가평군), 강원도(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충청북도(영동군, 단양군, 괴산군), 충청남도(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전라북도(무주군, 남원군, 순창군, 고창군, 태안군, 장수군, 부안군), 전라남도(진도군, 신안군, 구례군,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경상북도(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봉화군, 예천군, 울릉군), 경상남도(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고성군, 하동군)

- ‘인구기준’과 ‘연계기준’을 통해 구분한 각 지역유형의 특성을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지역유형별 주요 특성

지역구분	주요특성
완연한 도시지역	도시지역
	- 일반적인 도시지역 특성을 가짐
중간지역	자립형 중소거점 지역
	- 독자적인 생활권 구축 - 지역의 중소거점 지역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대도시 배후지역
	-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지닌 군이 포함(대부분 인구 5만 이상 군) - 중심도시와 상호보완적인 생활양식 - 중심도시에 근교 여가 서비스를 제공 - 도시적 성향이 강하지만 일부 지역에 농촌적 성향이 남아 있음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중규모 도시 배후 농촌
	- 대부분 인구 5만 이하 - 중심도시에 의존적인 생활 양식 - 상대적으로 양호한 농촌경관 제공 - 토지이용과 농촌경관 사이에서의 상충 가능성이 큼. 신구 주민간의 차별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농촌적 성향이 강하지만 시군 중심지는 도시적 성향이 있음.
완연한 농촌지역	원격지 농촌
	- 전통적인 농촌 경관 - 낙후된 서비스 접근성 - 우수한 자연 환경 - 인구감소가 예견

○ 조사가 완료된 최종 표본은 완연한 도시지역 1,646명, 중간 지역 451명, 중심도시연계 중간지역 248명, 중심도시연계 농촌지역 255명, 완연한 농촌지역 687명이며, 지역유형별 조사 표본의 동지역, 읍면지역 할당 수는 <표3>과 같다.

표 3. 지역유형별 표본수

(단위: 명)

	완연한 도시	중간지역	중심도시 연계중간	중심도시 연계농촌	완연한 농촌	합계
서울	317	0	0	0	0	317
부산	92	0	0	0	0	92
대구	108	0	0	0	0	108
인천	46	0	0	0	0	46
광주	41	0	0	0	0	41
대전	32	0	0	0	0	32
울산	16	0	0	0	0	16
세종	60	0	0	0	0	60
경기	326	16	7	70	26	445
강원	85	11	0	46	106	248
충북	32	79	47	19	48	225
충남	78	119	17	0	111	325
전북	46	46	30	16	94	232
전남	68	0	75	65	100	308
경북	80	110	55	28	140	413
경남	191	56	17	11	62	337
제주	28	14	0	0	0	42
합계	1646	451	248	255	687	3287

표 4. 지역유형별 표본의 동, 읍면지역 할당 수

(단위: 명)

지역구분	동지역	읍면지역	합계
완연한 도시	921	725	1646
중간지역	29	422	451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0	248	248
중심도시연계 농촌지역	0	255	255
완연한 농촌	0	687	687
합계	950	2337	3287

주: 완연한 도시 지역 중에는 도농복합시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읍면지역이 포함되었음.

□ 삶의 질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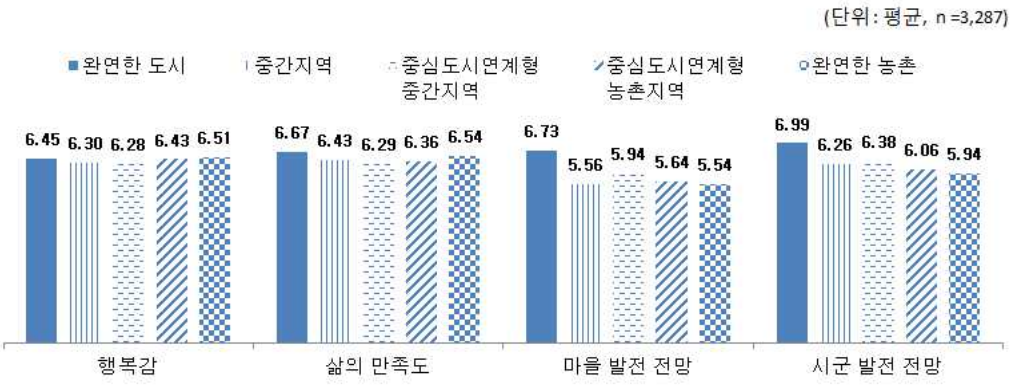
○ 자신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만족도(평균점수) 조사결과, 완연한 농촌지역이 6.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완연한 도시,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중간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도', '마을의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의 문항에서는 모두 완연한 도시 지역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도'는 완연한 도시 다음으로 완연한 농촌지역이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고, '마을의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은 완연한 도시 다음으로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이 높은 점수로 조사되었다.

- '행복감'과 '생활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로 조사된 완연한 농촌지역은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삶의 질 만족도 및 지역발전가능성 조사 결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조사결과

○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조사한 결과, 5개의 지역의 주민 모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활동·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요도 순위 3위와 4위의 경우, 완연한 도시, 중간지역,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은 정주생활기반, 안전 순이며,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과 완연한 농촌지역은 안전, 정주생활기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조사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

표 5. 삶의 질 향상 중요도 1순위 비율 - 지역 5가지 구분(단위 %)

구분	(사례수)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완연한 도시	(1646)	26.5	18.1	22.9	11.9	11.4	5.3	4.6
	순위	1	3	2	4	5	6	7
중간지역	(451)	31.3	13.3	27.5	10.0	9.1	4.0	4.4
	순위	1	3	2	4	5	7	6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248)	28.6	14.5	28.6	8.5	7.3	8.1	4.4
	순위	1	3	1	4	6	5	7
중심도시 연계형 농촌지역	(255)	35.3	9.4	25.5	10.6	9.4	4.7	5.1
	순위	1	4	2	3	4	7	6
완연한 농촌	(687)	30.0	10.5	28.1	12.1	9.5	6.1	3.8
	순위	1	4	2	3	5	6	7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결과

○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7대 부문 모두에서 완연한 도시지역 거주자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완연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비교해보면, 안전 부문과 환경·경관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에서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부문은 완연한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경관 부문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문화·여가 부문에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완연한 도시지역 5.85점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중간지역 4.26점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 부문에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완연한 도시지역 6.32점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4.98점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지역 5가지 구분(단위-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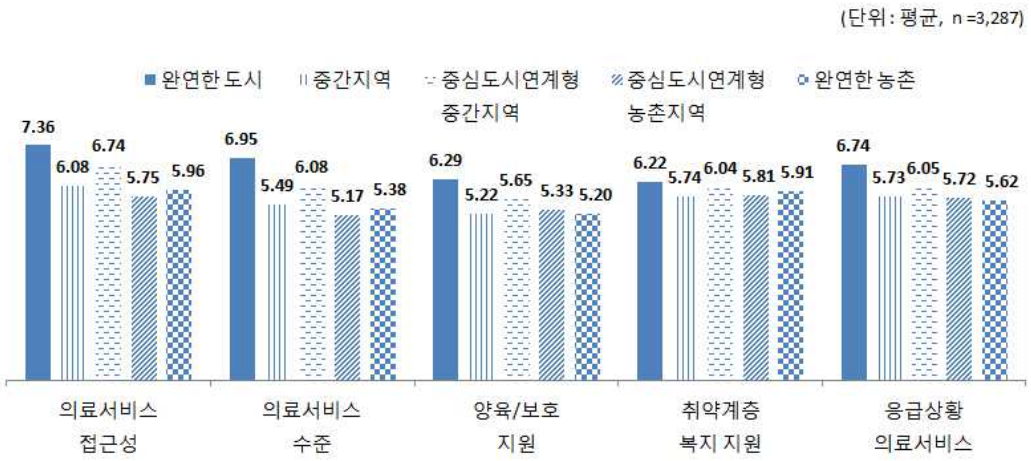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교육	문화·여가	환경·경관
완연한 도시	(1646)	6.71	7.00	5.47	6.75	6.32	5.85	6.20
중간지역	(451)	5.65	5.87	4.61	6.28	5.17	4.26	5.42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248)	6.11	6.19	4.80	6.50	5.49	4.98	5.53
중심도시 연계형 농촌지역	(255)	5.56	5.85	4.39	6.45	4.98	4.39	5.79
완연한 농촌	(687)	5.61	5.92	4.56	6..51	5.09	4.41	5.74

□ 7대 부문별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결과

○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모든 세부항목에서 완연한 도시지역이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연한 도시지역을 제외하였을 때는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수준'은 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보호 지원'과 '응급상황 의료서비스'는 완연한 농촌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세부항목과 '의료서비스 수준'세부항목에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완연한 도시지역과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간의 점수 차이가 각각 1.6점과 1.7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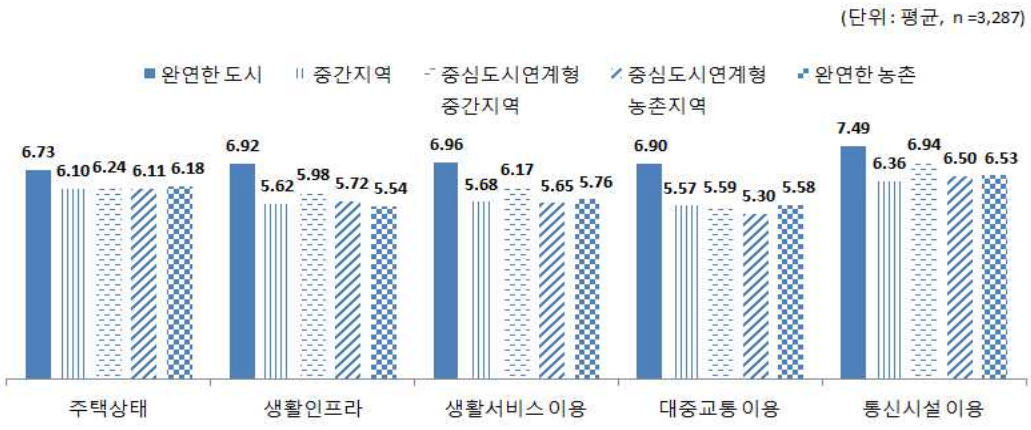
그림 3.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모든 세부항목에서 완연한 도시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완연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을 살펴보면, '주택상태'와 '통신시설 이용'항목은 중간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생활서비스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항목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한 '생활인프라'항목은 완연한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대중교통 이용'항목에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완연한 도시지역과 점수가 가장 낮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의 평균점수 간의 차이가 1.6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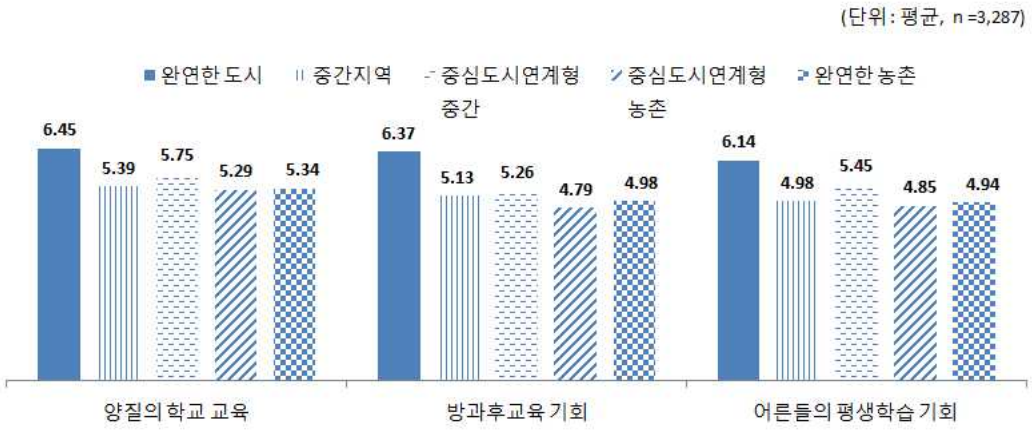
그림 4.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교육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모든 세부항목에서 완연한 도시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완연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 또한 모든 세부항목에서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부문의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방과후 교육 기회'항목에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완연한 도시지역과 점수가 가장 낮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평균점수 간의 차이가 1.5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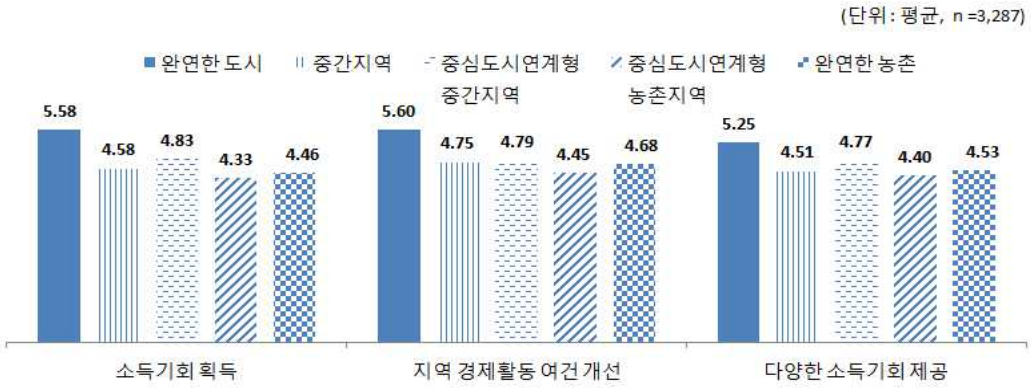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모든 세부항목에서 완연한 도시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완연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 또한 모든 세부항목에서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소득기회’항목에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완연한 도시지역과 점수가 가장 낮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평균점수 간의 차이가 1.2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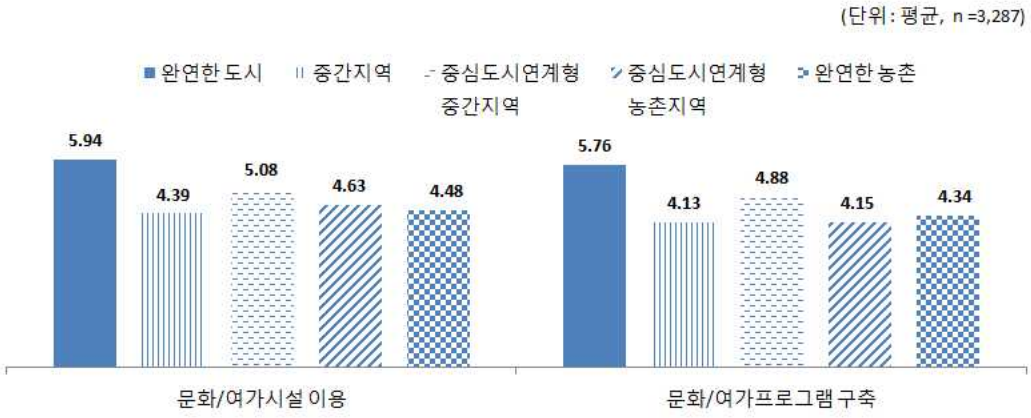


○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모든 세부항목에서 완연한 도시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완연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 또한 모든 세부항목에서 중간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문화·여가시설 이용’, ‘문화·여가 프로그램 구축’ 모두 1.5점, 1.6점으로 완연한 도시지역과 중간지역 간의 만족도 평균점수 차이가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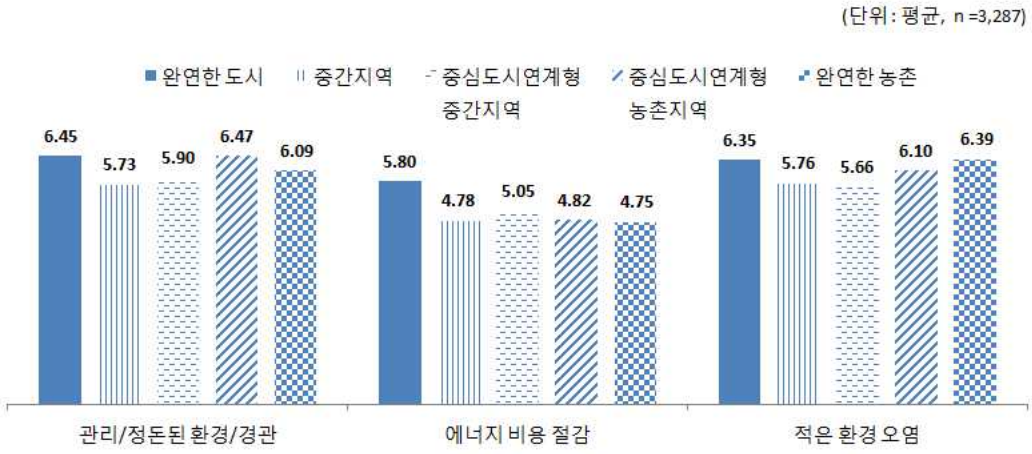


○ 환경·경관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관리·정돈된 환경 및 경관' 항목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 비용 절감'항목은 완연한 도시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의 만족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은 환경오염'항목은 완연한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각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을 확인해보면, '관리·정돈된 환경 및 경관' 항목은 완연한 농촌지역이, '에너지 비용 절감'항목은 완연한 농촌지역이, '적은환경오염'은 중간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즉, 환경·경관부문에서는 대체적으로 농촌의 범주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에너지 비용 절감'의 항목은 다른 정책부문과 흡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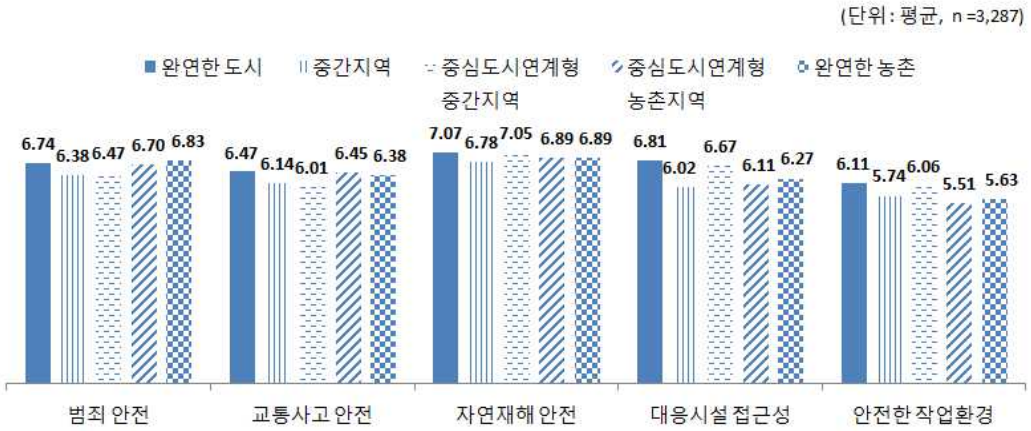
그림 8.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안전 부문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조사한 결과, ‘범죄 안전’ 항목은 완연한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나머지 세부항목에서는 완연한 도시지역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완연한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교통사고 안전’부문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자연재해 안전’, ‘대응시설 접근성’, ‘안전한 작업환경’항목은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각 세부항목별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을 확인해보면, ‘범죄 안전’, ‘자연재해 안전’, ‘대응시설 접근성’ 항목은 중간지역이, ‘교통사고 안전’항목은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이, ‘안전한 작업환경’ 항목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즉, 안전부문에서는 특히 중간지역의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 7대 부문 세부항목들의 지역구분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완연한 도시지역이 전체 만족도 평균점수 6.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연한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이 5.81로 가장 만족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 만족도 평균점수가 높은 부문은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완연한 농촌지역, 중간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중간지역이 7대 정책부문에 대한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환경·경관 부문의 2개 세부항목과 안전부문의 1개 세부항목을 제외한 모든 세부항목에서 완연한 도시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완연한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환경·경관부문의 2개 세부항목과 안전부문의 2개 세부항목을 제외한 모든 세부항목에서 중심연계형 중간지역의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연계형 농촌지역은 만족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세부항목이 26개 중 11개 항목으로, 최저 점수의 세부항목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교육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중심도시 연계형 농촌지역이 만족도 평균점수가 최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5가지 지역구분을 통한 8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균 차이

부문	완연한 도시	중간 지역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중심도시 연계형 농촌지역	완연한농촌	세부항목
보건·복지	7.36	6.08	6.74	5.75	5.96	의료서비스 접근성
	6.95	5.49	6.08	5.17	5.38	의료서비스 수준
	6.29	5.22	5.65	5.33	5.20	양육/보호 지원
	6.22	5.74	6.04	5.81	5.91	취약계층 복지지원
	6.74	5.73	6.05	5.72	5.62	응급상황 의료서비스
교육	6.45	5.39	5.75	5.29	5.34	양질의 학교교육
	6.37	5.13	5.26	4.79	4.98	방과 후 교육기회
	6.14	4.98	5.45	4.85	4.94	어른들의 평생학습 기회
정주생활기반	6.73	6.10	6.24	6.11	6.18	주택상태
	6.92	5.62	5.98	5.72	5.54	생활 인프라
	6.96	5.68	6.17	5.65	5.76	생활서비스 이용
	6.90	5.57	5.59	5.30	5.58	대중교통 이용
	7.49	6.36	6.94	6.50	6.53	통신시설 이용
경제활동·일자리	5.58	4.58	4.83	4.33	4.46	소득기회 획득
	5.60	4.75	4.79	4.45	4.68	지역경제활동 여건 개선
	5.25	4.51	4.77	4.40	4.53	다양한 소득기회 제공
문화·여가	5.94	4.39	5.08	4.63	4.48	문화/여가 시설 이용
	5.76	4.13	4.88	4.15	4.34	문화/여가프로그램 구축
환경·경관	6.45	5.73	5.90	6.47	6.09	관리/정돈된 환경/경관
	5.80	4.78	5.05	4.82	4.75	에너지비용 절감
	6.35	5.76	5.66	6.10	6.39	적은 환경오염
안전	6.74	6.38	6.47	6.70	6.83	범죄안전
	6.47	6.14	6.01	6.45	6.38	교통사고 안전
	7.07	6.78	7.05	6.89	6.89	자연재해 안전
	6.81	6.02	6.67	6.11	6.27	대응시설 접근성
	6.11	5.74	6.06	5.51	5.63	안전한 작업환경
전체 평균	6.44	5.49	5.81	5.50	5.56	

□ 소결 및 시사점: 농촌지역의 세분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 부문별 정책 마련 필요

○ 본 조사에서는 지역을 '인구기준'과 '도시-농촌 연계성'을 기준으로 하여 총 '완연한 도시지역', '중간지역',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 '완연한 농촌지역' 등 총 5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의 정책 부문별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그 결과, 각 지역마다 정책부문에 따라 만족도가 특히 떨어지거나 높은 부문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중심도시연계형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은 세부항목들에서 만족도 점수가 최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도시와 농촌을 이분화하여 조사하였을 때는 도출할 수 없는 결과들로, 농촌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각자 특성이 다른 농촌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 개별 농촌의 인구특성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부문별 정책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부록 2

2015년, 2016년 도시 및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 세부항목별 만족도 비교

부문	도시지역(동지역)			농촌지역(읍면지역)			세부항목
	2015	2016	차이	2015	2016	차이	
보건·복지	7.60	7.78	0.18	6.19	6.29	0.1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11	7.40	0.29	5.81	5.73	-0.08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6.55	6.62	0.07	5.65	5.45	-0.2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6.42	6.44	0.02	6.02	5.88	-0.14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7.00	7.71	0.71	5.92	5.86	-0.06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6.79	6.80	0.01	5.72	5.57	-0.15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83	6.88	0.05	5.49	5.22	-0.27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48	6.62	0.14	5.26	5.15	-0.11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기반	6.94	6.79	-0.15	6.52	6.30	-0.22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7.13	7.30	0.17	5.75	5.88	0.13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7.38	7.53	0.15	6.10	7.91	1.81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30	7.57	0.27	5.70	5.67	-0.03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부문	도시지역(동지역)			농촌지역(읍면지역)			세부항목
	2015	2016	차이	2015	2016	차이	
	-	7.84	-	-	6.68	-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016년 신규).
경제활동·일자리	5.63	5.86	0.23	4.62	4.72	0.1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5.67	5.83	0.16	4.89	4.86	-0.03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5.43	5.40	-0.03	4.83	4.69	-0.14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여가	6.26	6.61	0.35	4.80	4.70	-0.1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20	6.49	0.29	4.59	4.47	-0.12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경관	6.67	6.63	-0.04	6.30	6.08	-0.22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6.03	6.12	0.09	5.04	4.98	-0.06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51	6.49	-0.02	6.35	6.09	-0.26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6.52	6.81	0.29	6.70	6.63	-0.07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38	6.56	0.18	6.32	6.29	-0.03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15	7.25	0.1	6.81	6.87	0.06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7.12	-	-	6.28	-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2016년 신규).
	-	6.63	-	-	5.72	-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2016년 신규).

부록 3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 처리 될 것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 연구 책임: 심재헌 부연구위원(✆ 061-820-0000) / 유은영 연구원(✆ 061-820-0000)

*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조직입니다.

LOC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포항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AGE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만 19세 미만 면접중단
		만( )세 (※ 만 19세 이상만 응답)

Q01.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　　)시·도 (　　)시·군(　　)읍·면/동 (　　)리(행정리)

Q02. 현재의 마을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Q03.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종합	나는 지금 행복하다	① --------- ⑩	(　)점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 --------- ⑩	(　)점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 ⑩	(　)점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 --------- ⑩	(　)점

Q04.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삶터(생활서비스)	보건·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① ----- ⑩	(　)점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① ----- ⑩	(　)점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① ----- ⑩	(　)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① ----- ⑩	(　)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① ----- ⑩	(　)점
	교육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 ⑩	(　)점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 ⑩	(　)점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① ----- ⑩	( )점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① ----- ⑩	( )점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① ----- ⑩	( )점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① ----- ⑩	( )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① ----- ⑩	( )점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① ----- ⑩	( )점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 ⑩	( )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 ⑩	( )점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① ----- ⑩	( )점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① ----- ⑩	( )점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① ----- ⑩	( )점
일터(지역경제력)	경제활동·일자리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① ----- ⑩	( )점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① ----- ⑩	( )점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① ----- ⑩	( )점
쉼터(삶의 여유 공간)	문화·여가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① ----- ⑩	( )점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① ----- ⑩	( )점
	환경·경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① ----- ⑩	( )점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① ----- ⑩	( )점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① ----- ⑩	( )점
공동체의 터(주민 활력)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① ----- ⑩	( )점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① ----- ⑩	( )점

Q05. 다음의 4가지 지역발전부문 중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설문 문항	순위
주거인프라, 교육, 보건·복지 등의 생활서비스 여건이 잘 갖추어진 삶터로서의 지역발전이 중요하다	( )위
고용 및 소득기회, 경제활동 여건 등 지역경제력이 잘 갖추어진 일터로서의 지역발전이 중요하다	( )위
문화체육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환경 및 경관이 잘 정돈된 쉼터로서의 지역발전이 중요하다	( )위
주민들 사이의 교류와 친목활동 등이 활발한 공동체의 터로서의 지역발전이 중요하다	( )위

Q06. 다음의 정책부문 중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에 따라 1위부터 3위까지만 골라주십시오.

설문 문항	순위
[보건·복지] 적절한 수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여건	( )위
[교육] 아이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	( )위
[주거 및 생활환경]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및 생활환경 여건	( )위
[지역경제] 적절한 소득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제활동 여건	( )위
[문화·여가] 적절한 수준의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여건	( )위
[환경·경관]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된 환경·경관 여건	( )위
[지역사회] 주민들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마을 일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여건	( )위
[안전]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안전 여건	( )위

Q07.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Q06-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Q07번 문항으로

Q07-1.(Q06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어디로 이사하고 싶으십니까?( )

① 도시로　　②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③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④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Q07-2. 말씀하신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어려워하면 [보기] 제시

[보기]

주거 및 생활 인프라	① 생필품 구입이나 목욕탕, 미용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②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③ 교통이 불편하다	
	④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⑤ 난방비가 많이 든다	
경제활동	⑥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구직, 창업 등) /농촌에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지역사회	⑦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교육	⑧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⑨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환경·경관	⑩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건·의료	⑪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복지	⑫(영유아·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문화·여가	⑬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안전	⑭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⑮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그 외	⑯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개인 희망이 아닌)	
	⑰ 마을에(교류하고 지낼 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서	

☞ ⑱ 기타:(내용:　　)

Q08. 선생님께서는 귀농·귀촌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 Q08-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 Q09번 문항으로

Q08-1.(Q07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귀농·귀촌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개월

Q09. 선생님은 지역사회 활동(행사·모임 등)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① 전혀 참여 안 한다 ②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④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0. 선생님 댁의 주택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연립/빌라) ③ 아파트

④ 비거주용 건물 ⑤ 기타( ) ⑥(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1. 선생님 댁의 주택 거주(점유)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월세 ③ 무상

④ 기타( ) ⑤(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개인 및 가구 관련 질문입니다.

DQ01. 선생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DQ02. 선생님의 최근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좋다 ② 양호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지 않다 ⑤ 상당히 좋지 않다

⑥(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3. 선생님 댁의 최근의 가정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상당히 불만족한다

⑥(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4. 선생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원 이상　⑥(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5. 현재 선생님은 어떤 일(직업)을 하십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을 답해주십시오.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관리직(관공서, 회사 등)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퇴직　⑧ 무직　⑨ 기타(　　)

DQ06. 선생님 댁(본인 포함)에 농축산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텃밭 등 취미농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DQ07. 선생님 댁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독신가구 ☞ DQ08 문항으로
② 1세대 가구(부부) ☞ DQ08 문항으로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④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⑤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 DQ07-1번 문항으로
⑥ 기타(　　) ☞ DQ07-1번 문항으로

DQ07-1.(13번 문항에서 ③~⑥에 답한 경우만) 귀 댁에는 성인이 아닌(1~19세) 자녀나 손자녀가 있습니까?(　　)

① 없다 ☞ DQ08번 문항으로　② 있다 ☞ DQ07-2번 문항으로

DQ07-2.(13-1번 문항에서 ②에 답한 경우만) 자녀의 연령대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복수응답 가능)

① 영유아　② 초등학생　③ 중·고등학생　④ 기타(　　)

DQ08. 선생님 댁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소득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곤란해 하면 보기 제시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1,999만원　③ 2,000만원~2,999만원

④ 3,000만원~3,999만원　⑤ 4,000만원 이상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부록 4

2014년 및 2015년 만족도 조사의 부문별 세부 항목 비교

부문	2015년	2016년	비고
보건·복지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기반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부문	2015년	2016년	비고
	-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경제 활동 · 일자리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 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 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화·여가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경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신규
	-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신규

부록 5

2016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 개 요

○ 2016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 농어촌 지역의 객관적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삶의 질 정책 영역별 변화 실태를 분석

- 2015년 개정된 방식으로 총 27종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7개 정책 부문과 지역사회 부문에 대한 부문별 지표를 도출하고, 7개 정책 부문 지표를 통합한 2016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도출하여, 도시지역(일반시) 및 농촌지역(도농복합시, 군) 간 삶의 질 실태를 비교 분석

- 부문별 세부지표는 선형 변환 표준화 방법을 활용하여 산출

·선형 변환 방법은 값이 증가할수록 좋은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하는 최댓값 표준화(1),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에 적용하는 최댓값 표준화(2) 방식으로 구분

- (1) $x'_{ij} = \frac{x_{ij} - x_j^{\min}}{x_j^{\max} - x_j^{\min}} \times 100$ 혹은 (2) $x'_{ij} = \frac{x_j^{\max} - x_{ij}}{x_j^{\max} - x_j^{\min}} \times 100$

·표준화된 값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27개 세부지표 중 값이 증가할수록 나쁜 영향을 가지는 지표로 노후주택비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kg/일),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ton/㎢), 고령화율(%), 전출률(%), 자살률(%), 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재난재해 피해액 등에는 (2)의 표준화 방식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지표에는 (1)의 방식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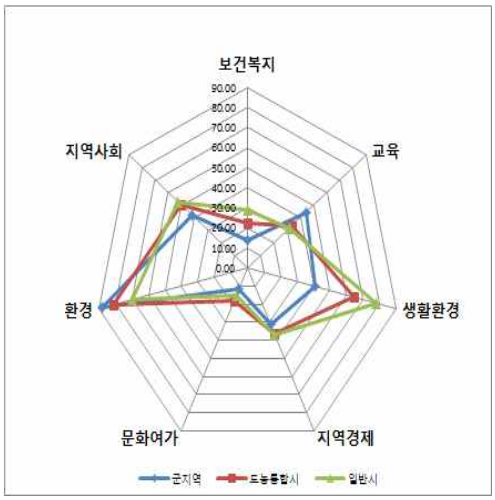
□ 2016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지표와 세부 내용

구분	지표	내용
보건·복지	인구 천 명당 의료인 수	• (의료인 수/인구)×1,000 • 의료인: 상근의사, 비상근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당 의료기관 수	• (의료기관 수/시·군 면적) •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영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보육시설 수/영유아 인구(5세 미만))×1,000
	고령인구 천 명당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수	•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65세 이상인구)×1,000
	인구 천 명당 전문의 인원 수	•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원 수/인구)×1,000
교육	1㎢당 학교 수 (초·중·고·특수학교)	• 총 학교수(초·중·고·특수학교)/시·군 면적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
	대학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4년제, 2년제 포함)/졸업자 수)×100
정주생활기반	노후주택 비율	• (준공 30년 초과 주택 수/총 주택 수)×100
	상·하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하수도 보급률)/2
	인구 천 명당 생활서비스 종사자 수	• (생활서비스 종사자수/인구)×1,000 • 생활서비스: 슈퍼마켓, 약국, 목욕, 미용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
경제활동·일자리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 표본조사
	경제활동인구 대비 총 사업체 종사자 수	• (총 사업체 종사자 수/경제활동인구)×1,000
	1인당 지방소득세	•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표 명칭 변경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자체수입: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 자주재원: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자치단체 예산규모: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 + 자주재원 + 보조금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세입기준)
문화·여가	문화기반시설 수	• 문화기반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인구 천 명당 공원조성 면적	• 공원: 도시공원(어린이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환경·경관	주민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	• 생활폐기물 배출량 / 인구 • 생활폐기물: 순수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1㎢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시·군 면적(㎢)
안전	인구 천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 (교통사고사망자수/인구)×1,000
	범죄 안전	• 시·군별 범죄안전 등급
	자연재해 피해율	• 연간 시·군별 자연재해 피해액
지역사회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총 인구)×100
	인구 1천 명당 순인구이동	• (순인구이동/인구)×1,000 • 순인구이동: 전입인구-전출인구
	전출률	• (지역 외부로 이동 인구/인구)×1,000
	연평균 인구 성장률	• (당해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전년 주민등록인구)*10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외국인 등록인구 포함)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 (자살자 수/ 인구)×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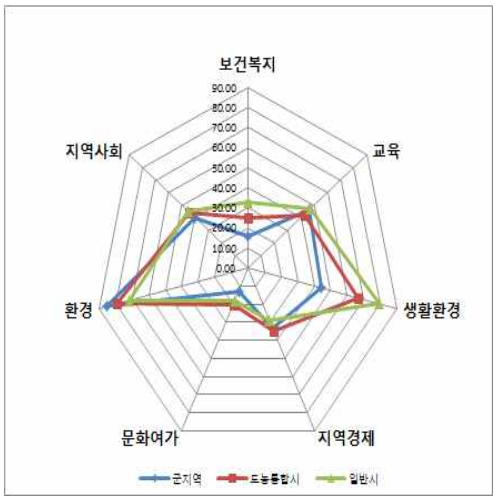
□ 2016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변화

부문	연도	군지역	도농통합시	일반시	일반시 - 군 차이	도농통합시 - 군 차이
보건·복지	2013년	13.83	22.39	28.93	15.10	8.56
	2014년	15.88	25.26	33.29	17.41	9.38
	2015년	19.12	29.64	39.85	20.73	10.52
	2016년	22.01	30.81	41.17	19.17	8.81
교육	2013년	44.35	33.85	31.60	-12.75	-10.50
	2014년	46.24	42.41	47.14	0.90	-3.83
	2015년	52.35	44.76	52.51	0.16	-7.59
	2016년	49.31	50.66	47.06	-2.25	1.35
정주생활 기반	2013년	41.15	64.71	78.24	37.09	23.56
	2014년	44.67	66.54	79.13	34.46	21.87
	2015년	38.67	55.51	68.66	29.99	16.84
	2016년	38.69	58.96	68.43	29.74	20.27
경제활동·일자리	2013년	30.98	36.54	36.77	5.79	5.56
	2014년	33.05	34.74	28.87	-4.18	1.69
	2015년	31.26	32.41	27.22	-4.04	1.15
	2016년	30.35	30.58	27.00	-3.35	0.23
문화·여가	2013년	11.45	17.98	15.17	3.72	6.53
	2014년	12.66	20.33	17.93	5.27	7.67
	2015년	15.29	21.52	17.40	2.11	6.23
	2016년	15.33	21.50	18.84	3.51	6.17
환경·경관	2013년	87.80	81.54	69.86	-17.94	-6.26
	2014년	85.13	79.01	71.74	-13.39	-6.12
	2015년	84.88	77.25	69.30	-15.58	-7.63
	2016년	84.07	75.32	65.23	-18.84	-8.75
안전	2013년	-	-	-	-	-
	2014년	-	-	-	-	-
	2015년	65.48	73.83	74.07	8.59	8.35
	2016년	67.97	74.00	75.55	7.58	6.03
지역사회	2013년	42.15	50.42	52.60	10.45	8.27
	2014년	39.91	44.68	45.31	5.40	4.77
	2015년	41.69	45.25	45.36	3.67	3.56
	2016년	41.21	46.43	46.77	5.55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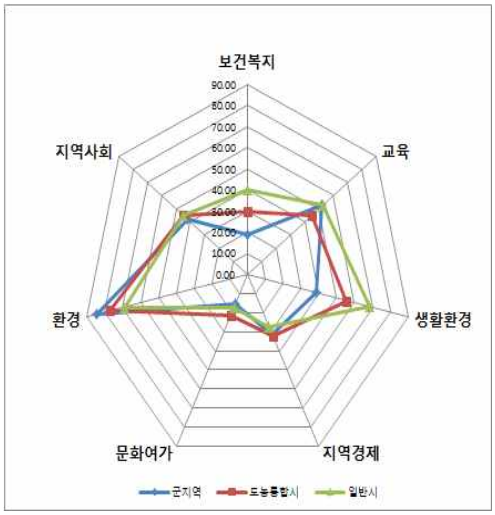
□ 2013~2016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부문별 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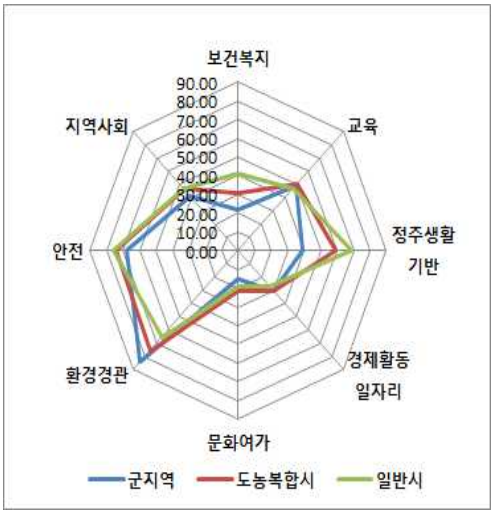
<2013년>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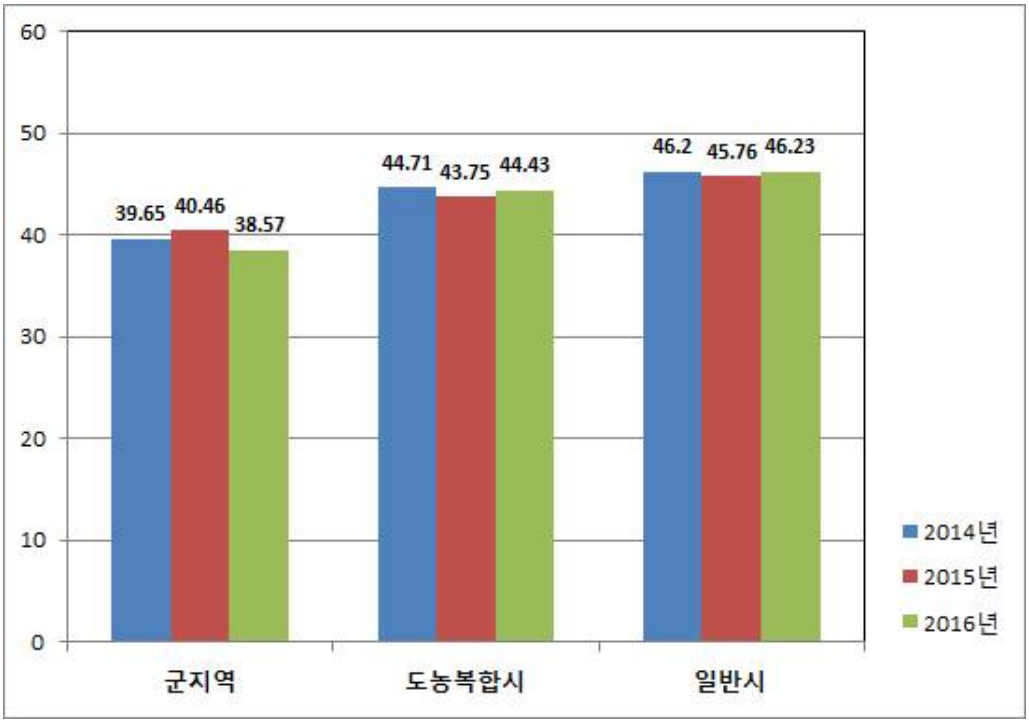


<2015년>



<2016년>

□ 연도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변화



※ 삶의 질 및 지역발전지수는 부문별 지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7대 정책 부문별 가중치는 정주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농어촌 주민의 정책 부문별 중요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2016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부문별 가중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0.234	0.116	0.139	0.221	0.098	0.066	0.126

참고 문헌

국내 문헌

농림수산식품부. 2009.『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14『2014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송미령·채종현. 201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김광선·성주인·채종현·최용욱. 2012.『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노승철·권인혜·한태녕. 201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심재헌·유은영. 201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lab.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종합정보포털(http://www.nier.go.kr/)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stat.mltm.go.kr)

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셈터(http://stat.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tat.tour.go.kr/ptour1/index.do)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보건·복지부 통계포털(http://stat.mw.go.kr).

산업통산자원부, 산업통계분석시스템(http://www.istans.or.kr/)

안전행정부, 재정고(http://lofin.mospa.go.kr)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http://stat2.smba.go.kr/)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포털(http://www.redis.go.kr/)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http://mdss.kostat.go.kr/)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 홈페이지(http://survey.keis.or.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환경부, 환경종합정보서비스(http://etips.me.go.kr/)
환경부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

E20-2016-8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6. 12.
발 행 2016. 12.
발행인 김 창 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